

2015. 10

제 주 지 역 경 제 동 향

「제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역 중앙은행」

한국은행 제주본부

차 례

지역경제동향	1
I. 실물경제동향	3
1. 수요	3
2. 산업활동	4
3. 고용	5
4. 소비자물가 및 부동산가격	5
II. 금융경제동향	6
1. 화폐 발행 및 환수	6
2. 한국은행 예금 및 대출금	7
3. 금융기관 여·수신	8
4. 신용보증	14
5. 자금사정	15
<주요경제도표>	16
국내경제동향	21
제주경제브리프	33
지역경제일지	57
지역경제지표	61

지 역 경 제 동 향

I . 실물경제동향

II . 금융경제동향

< 주 요 경 제 도 표 >

I. 실물경제동향

◆ 8~9월중 **제주경제**는 건설경기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광객수 증가폭이 확대되고 소비가 늘어나는 등 **회복세** 지속

수요

- (소비)** 9월중 **소비**는 대형소매점판매액이 증가로 돌아서는 등 **회복되는 모습**
- (건설)** 민간부문 건설 호조로 **증가세** 지속

	2013		2014				2015					9월
	연간	연간	1/4	2/4	3/4	4/4	1~8월	1/4	2/4	7월	8월	
■ 신용카드 사용액 ¹⁾²⁾	7.1	8.5	9.8	9.2	6.2	9.1	10.0	8.2	10.3	10.8	13.6	..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³⁾	14.6	10.0	18.6	9.3	2.7	13.3	4.7	18.1	8.4	-20.2	-9.2	13.3
■ 소비자심리지수(CSI) ⁴⁾	103	107	108	107	108	106	104 ⁵⁾	102	103	102	106	108
■ 건설수주액	1.7	6.5	73.0	-30.1	-10.6	49.4	68.5	-1.5	83.7	43.6	260.1	..
■ 건축착공면적	-1.7	32.6	38.1	-9.4	72.8	34.8	57.4 ⁵⁾	86.7	92.5	-32.8	169.4	-8.4
■ 건축허가면적	-9.6	58.9	46.8	-6.2	39.1	177.4	27.7 ⁵⁾	-4.1	57.9	6.9	83.2	37.7

주 : 1) 은행계 신용카드의 청구지 기준 2) 2014년부터 **舊하나sk카드** 사용액 포함

3) 불변지수(2010=100), 2013.2월 기준년 개편

4) 기준=100, 해당월 기준, 연간 및 분기자료는 월평균

5) 2015.1~9월중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제주본부,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활동

- (관광) 9월중 **관광객수**는 내국인 관광객수가 꾸준히 늘어난 데다 외국인 관광객수는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증가폭 확대**

관광 관련 주요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3	2014 ⁴⁾		2015					
	연간	연간	4/4	1~9월	1/4	2/4	3/4	8월	9월
■ 관광객수	12.0 (1,085)	13.2 (1,229)	18.3 (310)	8.8 (1,000)	15.4 (287)	9.5 (352)	3.6 (362)	6.5 (133)	11.0 (121)
[내국인]	6.3	5.0	6.1	21.9	11.1	18.4	35.5	45.0	25.8
(개별)	10.1	13.0	13.2	23.0	16.5	15.0	36.7	46.5	26.9
(단체 ²⁾)	-11.4	-41.1	-35.7	9.0	-35.5	60.9	16.2	11.2	14.2
[외국인]	38.8	42.6	77.2	-24.9	37.6	-12.5	-54.6	-55.3	-21.9
(일본)	-28.5	-25.1	-26.3	-31.6	-27.3	-27.2	-42.1	-7.1	-49.1
(중화권 ³⁾)	57.3	52.3	96.3	-26.8	42.6	-13.4	-56.7	-57.7	-22.2

주 : 1) () 내는 기간중 관광객수(만명) 2) 10인 이상 3) 중국,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 4개국

4) 2014.1월부터 내국인 관광객을 개별, 부분패키지, 패키지(여행사 관광 상품) 관광객으로 구분
(부분패키지는 개별여행으로 분류)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농축수산) **농산물 출하액**은 하우스감귤 출하량 감소로, **축산물 출하량**은 소, 돼지 등의 생산 감소로 각각 줄어든 반면, **수산물 출하량**은 갈치와 고등어 어획이 늘어나면서 **증가**로 전환

- (제조업) 음료를 중심으로 **감소**

- (수출입) **수출**은 농림수산물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수입**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

산업활동 관련 주요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3	2014		2015				
	연중	연중	4/4	1~8월	1/4	2/4	7월	8월
■ 농산물 출하액 ¹⁾	8.1	0.1	-1.8	3.5	-4.6	20.0	16.3	-7.3
■ 축산물 출하량	4.2	1.1	-3.6	-2.9	-1.6	-1.7	1.1	-13.7
■ 수산물 출하량	0.5	-6.6	-8.7	0.2	11.5	-16.3	-17.7	32.9
■ 제조업 생산	9.1	1.4	3.2	10.2	29.0	2.9	-4.8	-5.1
■ 수출액 ²⁾	-4.3	3.0	-3.2	14.2	4.1	8.3	34.3	49.0
■ 수입액 ²⁾	-16.3	25.1	46.3	13.0	-10.5	45.6	30.5	-15.6

주 : 1) 농협의 농산물 공동판매실적 2) 무역협회 기준

자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고 용

- 9월 중 **고용사정**은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계속 양호한 모습**

고용 관련 주요 지표

(전년동기대비, 천명, %)

	2013		2014		2015					9월
	연간	4/4	연간	4/4	1~9월	1/4	2/4	3/4	8월	
■ 취업자수 증감 ¹⁾	8.6	7.6	11.8	8.6	14.4	5.7	13.9	23.5	26.2	23.3
[농림어업]	-3.5	-7.5	-9.1	-8.5	1.4	-1.2	1.3	4.1	4.9	4.3
[제조업]	2.8	1.4	-0.8	-1.5	-0.5	-1.9	0.0	0.4	0.6	0.7
[건설업]	-2.3	-3.0	-1.6	1.0	5.9	4.0	5.8	7.9	7.9	7.9
[서비스업]	11.5	16.7	23.0	17.2	7.3	4.3	6.6	11.0	12.8	10.5
■ 고용률 ²⁾	65.9	67.0	66.6	67.4	67.4	66.3	67.3	68.5	68.5	68.7
■ 실업률 ²⁾	1.8	1.6	2.0	1.6	0	2.0	1.7	2.5	1.8	1.5

주 : 1) 분기 및 연간자료는 월평균 2) 해당월 기준, 분기 및 연간자료는 월평균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및 부동산가격

- 9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5% 상승**
- 9월 중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7% 상승**
- 8월 중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

물가 및 부동산가격 관련 주요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3		2014		2015					9월
	연간	4/4	연간	4/4	1~9월	1/4	2/4	3/4	8월	
■ 소비자물가	1.4	1.1	0.7	0.5	0.5	0.3	0.7	0.7	0.6	0.5
[상 품]	0.9	0.5	-0.7	-0.5	-0.5	-1.2	-0.3	-0.1	-0.1	-0.2
(농축수산물)	1.0	-2.0	-1.5	2.9	0.8	3.0	4.8	5.3	4.1	4.1
(공업제품)	0.7	0.9	-0.6	-1.1	-1.6	-1.0	-0.8	-0.9	-0.9	-0.7
(전기·수도·가스)	3.9	2.3	0.6	-1.6	-0.3	0.5	-5.1	-5.2	-5.1	-5.1
[서비스]	1.9	1.7	2.0	1.6	1.7	1.6	1.4	1.1	1.1	1.2
(공공서비스)	0.5	1.3	2.3	2.0	2.3	2.4	1.4	0.9	0.9	0.9
(개인서비스)	2.2	1.9	2.1	1.4	1.5	1.4	1.3	1.2	1.2	1.2
■ 주택매매가격 ¹⁾	-0.5	4.7	1.7	6.8	2.0	2.0	2.7	0.8	0.8	0.7
[아파트]	-0.4	1.6	1.0	5.0	0.5	1.6	2.8	0.9	0.9	1.1
■ 토지가격 ¹⁾	1.4	3.7	1.0	2.1 ²⁾	0.9	0.8	..	0.4

주 : 1) 전기대비 2) 2015.1~8월중
 자료 : 통계청,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II. 금융경제동향

1. 화폐 발행 및 환수

- 2015년 8월중 제주지역의 화폐 발행 및 환수 상황을 보면 417억원의 환수초과가 발생(2015. 7월 364억원 환수초과)
- 화폐발행액은 전월에 비해 45억원 감소한 반면 환수액은 전월보다 8억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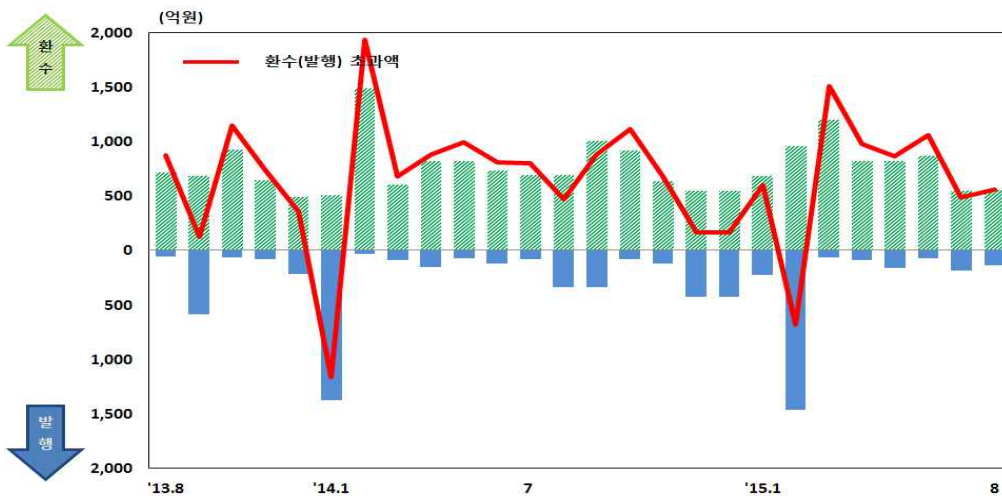
한국은행 제주본부 화폐 발행 및 환수액

(억원)

	2014				2015			8월	
	연중	1~8월	7월	8월	1~8월	7월			
■ 화폐 발행액 (A)	3,238	2,269	83	340	2,829	183	138	(-45)	
■ 화폐 환수액 (B)	9,423	6,325	686	691	6,979	547	555	(+8)	
■ 환수 초과액 (B-A)	6,185	4,056	603	351	4,150	364	417	(+53)	
■ 환 수 율 (B/A)	2.9	2.8	8.2	2.0	2.5	3.0	4.0	(+1.0)	

주 : ()내는 전월대비 증감액

한국은행 제주본부 화폐 발행 및 환수액 추이



2. 한국은행 예금 및 대출금

- 2015년 8월말 현재 제주지역 예금은행의 한국은행 당좌예금잔액은 632억원으로 전월말(433억원)에 비해 199억원 증가
- 한국은행의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금잔액(금융중개지원대출)은 1,006억원으로 전월말(1,005억원)에 비해 1억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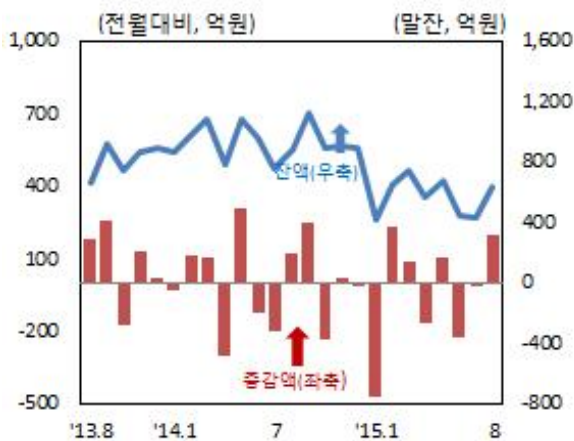
한국은행 예금 및 대출금

(기간중 증감,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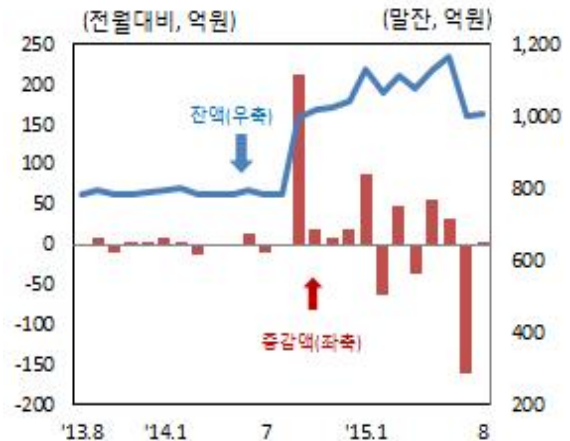
	2014				2015				8월말 잔액
	연중	1~8월	7월	8월	1~8월	7월	8월		
■ 예 금	8	-11	-199	177	-263	-12	199	632	
■ 대 출 금	255	-2	-11	0	-38	-162	1	1,006	
(금융기관별 대출) ¹⁾	46	-2	-11	0	-38	-162	1	14	
(지역본부별 대출) ²⁾	209	0	0	0	0	0	0	992	

주 : 1) 한국은행 본점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업여신 취급 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는 C1자금
 2)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금융기관 지역본부별로 배정하는 C2자금

한국은행 예금



한국은행 대출금



3. 금융기관 여·수신

가. 개 황

□ 2015년 8월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
(+3,418억원 → +2,904억원)

○ (권역별) 예금은행(+2,346억원 → +1,956억원), 비은행금융기관(+1,072억원 → +948억원) 모두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각각 축소

○ (대출항목별) 기업대출(+1,332억원 → +554억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가계대출(+1,857억원 → +2,144억원)은 신용등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

* 전년동월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26.2%로 전국평균(7.7%)을 큰 폭 상회

금융기관 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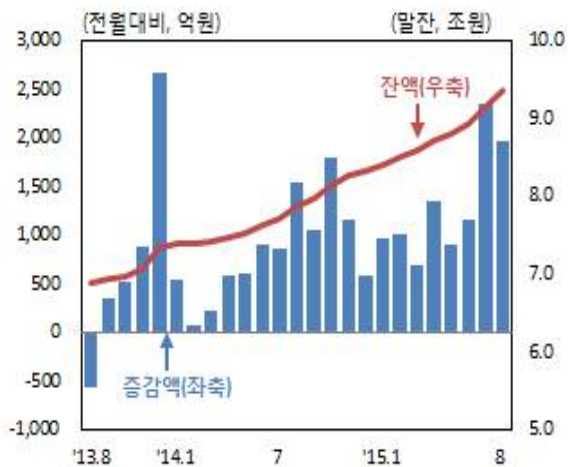
(기간중 증감, 억원)

	2014년					2015년			8월말잔액
	연중	1~8월	8월	1~8월	7월	8월	(1.9)	<17.9>	
총 여신	16,441	7,767	1,861	15,288	3,418	2,904	(1.9)	<17.9>	157,956
■ 예금은행 ¹⁾	9,873	5,295	1,544	10,379	2,346	1,956	(2.1)	<19.0>	93,502
■ 비은행금융기관 ²⁾	6,568	2,472	317	4,909	1,072	948	(1.5)	<16.2>	64,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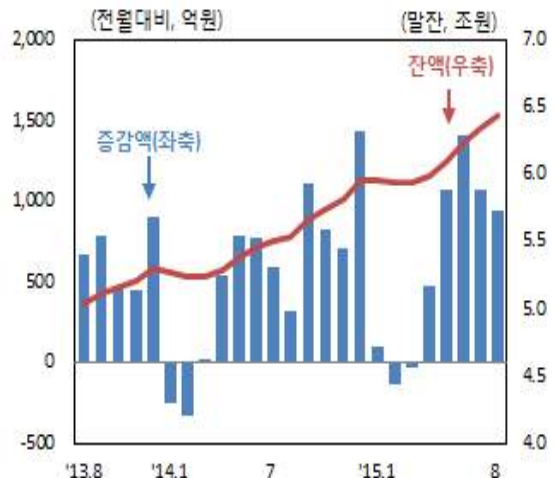
주 : 1)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2) 생명보험사 제외

3) ()내는 전월말 잔액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동월말 잔액대비 증감률(%)

예금은행 원화대출금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 2015년 8월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1,468억원 → +3,026억원)

○ (예금은행) 요구불예금 및 시장성 수신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 (+966억원 → +2,408억원)

○ (비은행금융기관) 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502억원 → +618억원)

금융기관 수신

(기간중 증감,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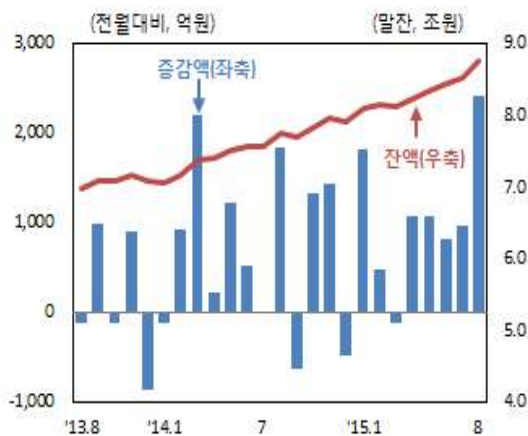
	2014년					2015년		8월말잔액
	연중	1~8월	8월	1~8월	7월	8월	<전월대비>	
총 수신	16,496	10,682	2,272	15,716	1,468	3,026 (1.5)	<11.6>	207,397
■ 예금은행 ¹⁾	8,397	6,747	1,825	8,490	966	2,408 (2.8)	<13.1>	87,592
■ 비은행금융기관 ²⁾	8,099	3,935	447	7,225	502	618 (0.5)	<10.5>	119,805

주 : 1) 시장성수신(CD, RP, 표지어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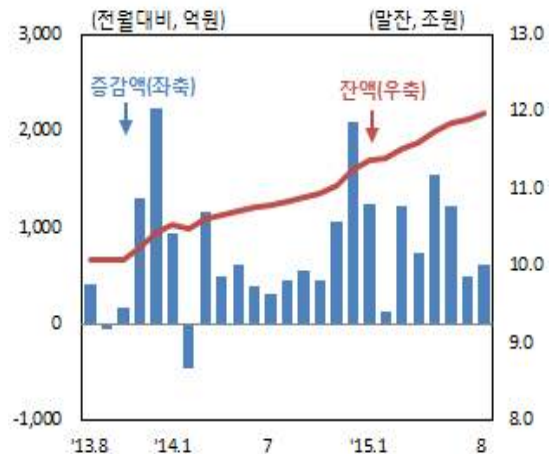
2)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판매액 포함

3) ()내는 전월말 잔액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동월말 잔액대비 증감률(%)

예금은행 수신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나. 금융권별 여신

【 예금은행 】

□ 2015년 8월중 예금은행 원화대출금(8월말 잔액 9조 3,502억원)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2,346억원 → +1,956억원)

○ (기업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1,026억원 → +760억원)

○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756억원 → +754억원)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 대출 실행 등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신용등 기타대출(+444억원 → +432억원)은 토지 등을 담보로 한 주택외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소폭 축소(+1,200억원 → +1,186억원)

* 제주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5.7월 1,027건 → '15.8월 775건(전월대비 24.5% 감소)(국토교통부)

○ (공공및기타대출)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120억원 → +10억원)

예금은행 원화대출금

(말잔 기준, 기간중 증감, 억원)

	2014년			2015년				8월말잔액	
	연중	1~8월	8월	1~8월	7월	8월			
원화대출금 합계	9,873	5,295	1,544	10,379	2,346	1,956	(2.1)	<19.0>	93,502
<차입주체별>									
▪ 기업대출	5,569	3,752	990	3,968	1,026	760	(1.4)	<11.5>	56,093
대기업	-11	-165	-37	211	-48	-25	(-1.6)	<32.2>	1,497
중소기업	5,580	3,917	1,027	3,757	1,074	785	(1.5)	<11.0>	54,596
▪ 가계대출	4,155	1,376	362	6,392	1,200	1,186	(3.6)	<37.3>	33,737
주택담보대출	2,274	1,084	251	3,760	756	754	(5.1)	<46.2>	15,661
기타대출	1,881	292	0	2,632	444	432	(2.4)	<30.5>	18,076
▪ 공공및기타대출	149	168	191	19	120	10	(0.3)	<0.0>	3,672
▪ 금융자금	10,202	5,495	1,542	10,644	2,386	1,974	(2.3)	<20.7>	89,478
(할인어음)	-28	2	-3	-37	26	-51	(-18.1)	<-22.5>	231
(당좌대출)	-15	8	-2	9	9	2	(3.7)	<-20.0>	56
(일반자금)	7,986	3,880	1,235	9,009	2,178	1,748	(2.5)	<22.9>	70,364
▪ 재정자금	-329	-200	2	-265	-40	-18	(-0.4)	<-8.9>	4,024
<용도별>									
▪ 시설자금	3,828	2,733	709	2,012	327	399	(1.8)	<16.5>	21,974
▪ 운전자금	6,045	2,562	835	8,367	2,019	1,557	(2.2)	<19.9>	71,528

주 : 1) ()내는 전월말 잔액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동월말 잔액대비 증감률(%)

【 비은행금융기관 】

□ 2015년 8월중 비은행금융기관 여신(8월말 잔액 6조 4,454억원)은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1,072억원 → +948억원)

○ (기관별) 새마을금고(+162억원 → +215억원)는 주택외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신용협동조합(+390억원 → +311억원)은 법인대출 신규 취급 감소 등으로, 상호금융(+501억원 → +420억원)은 정책성자금의 만기 상환 등으로 증가폭이 각각 축소

○ (대출항목별) 기업대출(+306억원 → -206억원)은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의 만기 상환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가계대출(+657억원 → +958억원)은 신용등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

비은행금융기관¹⁾ 여신

(말잔 기준, 기간중 증감, 억원)

	2014년			2015년					
	연중	1~8월	8월	1~8월	7월	8월		8월말잔액	
여신 합계	6,568	2,472	317	4,909	1,072	948	(1.5)	<16.2>	64,454
■ 신탁회사 ²⁾	-30	-31	-12	-10	1	-2	(-2.9)	<-11.7>	68
■ 상호저축은행	167	85	13	116	16	2	(0.5)	<99.0>	398
■ 신용협동조합	1,758	672	-73	2,066	390	311	(2.2)	<28.1>	14,388
■ 상호금융	3,359	1,202	221	1,588	501	420	(1.1)	<11.2>	37,277
■ 새마을금고	1,322	558	167	1,157	162	215	(1.8)	<18.6>	12,276
■ 기타	-8	-14	1	-8	2	2	(4.4)	<-4.1>	47
기업대출³⁾	1,542	355	-61	909	306	-206	(-1.4)	<17.6>	14,039
대기업	15	0	0	2	0	0	(0.0)	<0.0>	17
중소기업	1,527	355	-61	907	306	-206	(-1.4)	<17.4>	14,022
가계대출	4,607	2,339	290	3,514	657	958	(2.6)	<17.8>	38,266
주택담보대출	1,237	844	10	587	218	188	(1.5)	<8.2>	12,948
기타대출 ⁴⁾	3,370	1,495	280	2,927	439	770	(3.1)	<23.4>	25,318

주 : 1) 생명보험사 제외 2)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신탁계정 대출
 3) 2014.4월부터 신규편제 4)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및 적금담보 대출 등
 5) ()내는 전월말 잔액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동월말 잔액대비 증감률(%)

다. 금융권별 수신

【 예금은행 】

- 2015년 8월중 예금은행 수신(8월말 잔액 8조 7,592억원)은 요구불예금과 시장성수신을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966억원 → +2,408억원)
 - (저축성예금) 자치도의 예금인출 및 개인예금의 증도해지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677억원 → +155억원)
 - (요구불예금) 자치도의 재정자금 유입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273억원 → +2,139억원)
 - (시장성수신) 기업여유자금의 양도성예금증서(CD) 유입으로 증가폭이 확대(+16억원 → +114억원)

예금은행 수신

(말잔 기준, 기간중 증감, 억원)

	2014년			2015년					
	연중	1~8월	7월	1~8월	7월	8월	8월말잔액		
수신 합계	8,397	6,747	1,825	8,490	966	2,408	(2.8)	<13.1>	87,592
■ 원화예수금	9,352	7,310	1,583	7,934	950	2,294	(2.8)	<13.4>	84,319
요구불예금	4,056	1,705	673	11,934	273	2,139	(10.0)	<154.8>	23,516
(별단예금)	203	-168	-115	160	-153	171	(9.2)	<35.5>	2,025
(보통예금)	1,942	1,525	454	2,351	-450	107	(1.1)	<39.9>	9,697
(공공예금)	1,892	282	307	9,385	888	1,869	(19.1)	<1673.5>	11,652
저축성예금	5,296	5,605	910	-4,000	677	155	(0.3)	<-6.6>	60,803
(정기예금)	2,709	4,465	231	-6,232	105	-280	(-0.8)	<-18.2>	35,916
(정기적금)	225	98	49	-118	-25	-5	(-0.2)	<0.3>	2,595
(저축예금)	2,211	1,121	415	1,852	500	-69	(-0.5)	<25.0>	14,733
(기업자유예금)	-118	-278	181	347	88	504	(10.3)	<10.3>	5,414
■ 시장성수신	-955	-563	242	556	16	114	(3.6)	<5.3>	3,273
양도성예금증서	-362	-9	244	386	1	138	(17.2)	<3.6>	939
환매조건부채권매도	12	26	-10	35	2	-22	(-16.8)	<23.9>	109
대출어음	32	34	-1	-9	5	-2	(-1.7)	<-8.8>	114
원화발행채권	-637	-614	9	144	8	0	(0.0)	<6.1>	2,111

주 : 1) ()내는 전월말 잔액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동월말 잔액대비 증감률(%)

【 비은행금융기관 】

□ 2015년 8월중 비은행금융기관 수신(8월말 잔액 11조 9,805억원)은 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502억원 → +618억원)

○ 상호금융(+34억원 → -48억원)은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상환을 위한 예금 인출 등으로 월중 감소로 전환되었고, 신용협동조합(+273억원 → +216억원)은 정기예금 만기 인출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

○ 반면, 새마을금고(+7억원 → +40억원)는 자립예탁금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사(+138억원 → +158억원)는 주식형펀드를 중심으로, 신탁회사(-9억원 → +225억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각각 확대

비은행금융기관¹⁾ 수신

(말잔 기준, 기간중 증감, 억원)

	2014년			2015년					
	연중	1~8월	7월	1~8월	7월	8월			8월말잔액
수신 합계	8,099	3,935	447	7,225	502	618	(0.5)	<10.5>	119,805
■ 자산운용회사 ²⁾	333	159	-130	1,073	138	158	(2.1)	<19.1>	7,775
■ 신탁회사 ³⁾	1,482	1,368	295	1,179	-9	225	(3.2)	<22.0>	7,165
■ 상호저축은행	-506	-390	-3	-127	7	-1	(-0.1)	<-22.3>	848
■ 신용협동조합	1,496	591	168	1,773	273	216	(1.3)	<18.2>	17,379
■ 상호금융	4,408	1,873	123	2,494	34	-48	(-0.1)	<8.5>	63,946
■ 새마을금고	1,037	416	-3	738	7	40	(0.2)	<8.4>	17,445
■ 우체국예금	-151	-82	-13	96	52	28	(0.5)	<0.5>	5,247

주 : 1) 생명보험사 제외 2) 수익증권 판매액 3)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신탁계정
 4) ()내는 전월말 잔액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동월말 잔액대비 증감률(%)

4. 신용보증

□ 2015년 8월중 도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액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43억원 → +84억원)

- (업종별) 숙박·음식점업(+20억원 → +72억원)을 중심으로 증가
- (종류별) 비은행대출보증(-16억원 → +10억원)이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은행대출보증(+59억원 → +78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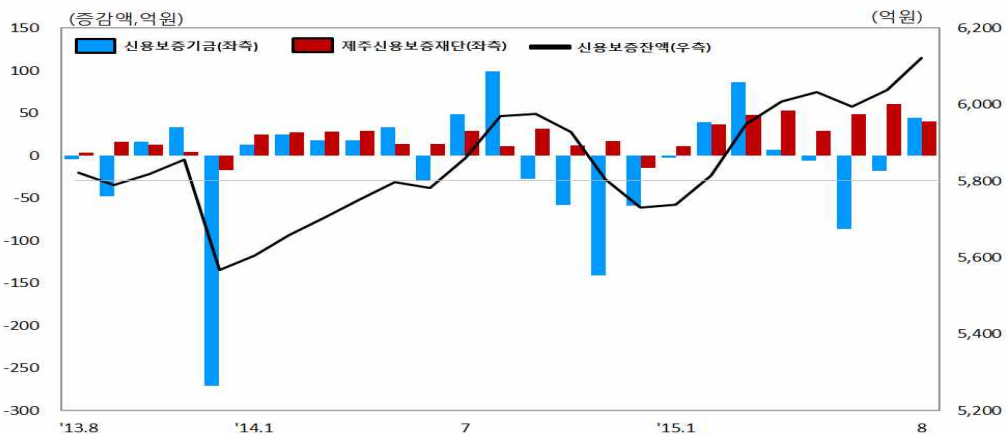
신용보증액

(말잔기준, 기간중 증감, 억원)

보 증 합 계		2014년				2015년			
		연중	1~8월	7월	8월	1~8월	7월	8월	8월말잔액
		163	402	78	110	391	43	84	6,122 (100.0)
기업은행	제조업	70	63	2	-1	0	-3	8	683 (11.2)
	건설업	1	-8	3	5	-11	1	4	725 (11.8)
	도·소매업	71	67	310	13	101	41	1	2,473 (40.4)
	숙박·음식점업	7	163	-267	31	300	20	72	1,068 (17.4)
	운수업	44	82	78	22	16	-1	0	273 (4.5)
	기타	-30	35	-48	40	-15	-15	-1	900 (14.7)
지방은행	은행대출보증	67	230	60	115	262	59	78	3,490 (57.0)
	어음보증	-45	-32	-4	0	-37	0	-3	60 (1.0)
	비은행대출보증	74	156	16	-5	145	-16	10	2,392 (39.1)
	기타 ¹⁾	67	48	6	0	21	0	-1	180 (2.9)
지방기관	신용보증기금	-60	225	49	49	63	-18	44	3,516 (57.4)
	제주신용보증재단	223	177	29	29	328	61	40	2,606 (42.6)

주 : 1) 지급보증의 보증, 상거래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2) ()내는 전체 신용보증잔액에 대한 구성비(%)

신용보증 잔액 및 월중 증감액(기관별) 추이



5. 자금사정

- 2015년 8월말 제주지역 예금은행의 대출연체율은 0.19%로 전월(0.28%)에 비해 0.09%p 하락
-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전, 금액 기준)은 0.03%로 전월(0.02%)에 비해 0.01%p 상승
-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107.0%로 전월(107.8%)보다 0.8%p 하락
- 예금은행 요구불예금회전율은 1.6회로 전월(1.7회)보다 0.1회 하락

자금사정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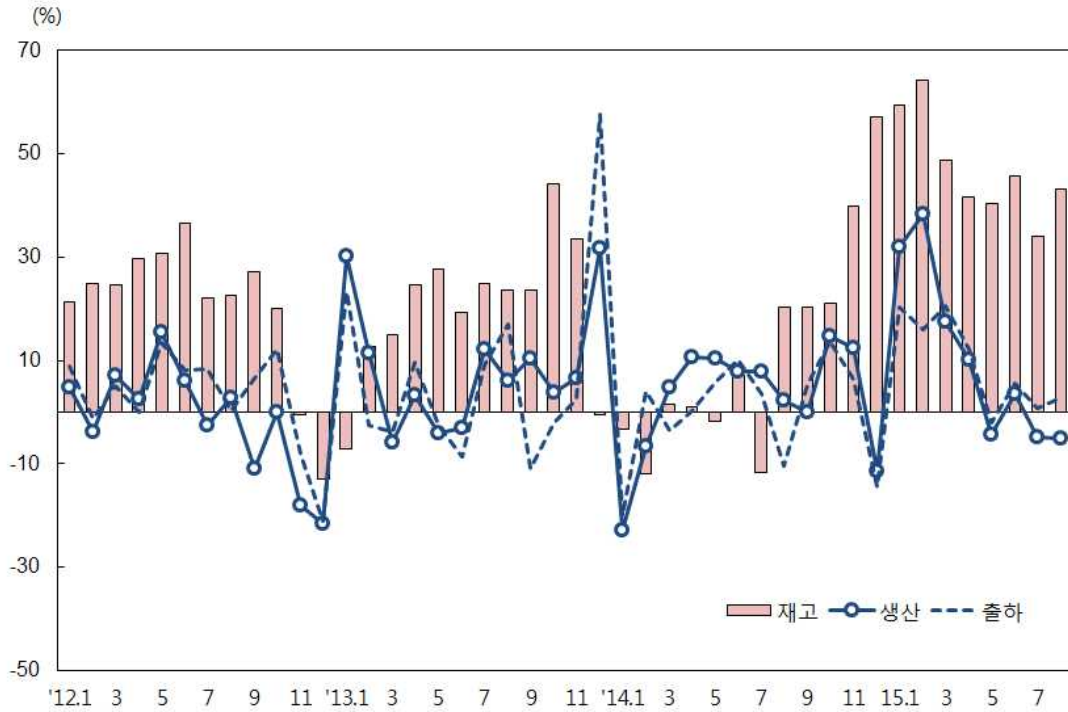
(%, %p, 억원)

	2014년				2015년			전월대비 (B-A)
	연중 평균 ¹⁾	6월	7월	8월	6월	7월(A)	8월(B)	
예금은행 연체율²⁾	0.69 ^r	0.62	0.77	0.77	0.27	0.28	0.19	-0.09
(기 업)	0.94 ^r	0.82	1.04	1.07	0.36	0.36	0.23	-0.13
(가 계)	0.28 ^r	0.31	0.34	0.27	0.15	0.16	0.16	-
어음부도율³⁾	0.10	0.18	0.13	0.03	0.13	0.02	0.03	+0.01
<참고> 전국	0.19	0.22	0.21	0.28	0.19	0.09	0.14	+0.05
총 어음교환금액	51,351	4,039	4,014	3,226	4,799	4,118	3,553	-565
부도금액	53.3	7.4	5.1	1.1	6.0	0.9	1.0	+0.1
예금은행 예대율⁴⁾	102.8	100.9	102.1	101.7	106.2	107.8	107.0	-0.8
요구불예금회전율(회)⁵⁾	4.6	5.1	4.0	3.8	2.2	1.7	1.6	-0.1
<참고> 전국(회)	26.7	25.9	27.7	25.2	27.2	25.9	22.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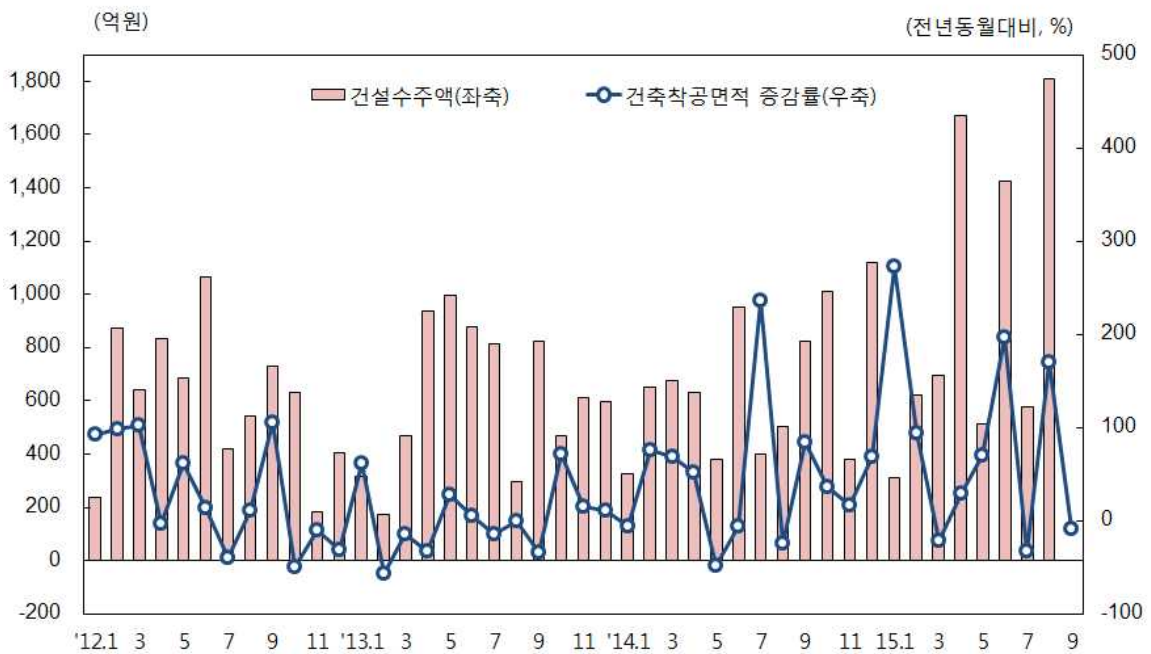
- 주 : 1) 연체율 통계편제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2014.9월 이후 통계를 소급하여 수정
 2) 연체율 = 원화연체대출금/원화대출금(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은행 및 신탁계정의 원화대출금 중 채권채무조정후의 대출금)
 3) 어음부도율 = (부도금액/총어음교환액)×100, 전자결제액 조정전 금액기준, 2012.1월부터 전자어음 포함
 4) 예대율(<총대출금/총예수금>×100)은 금융기관의 조달자금 대비 대출운용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 금융자금의 역외유출입 정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 예대율이 100% 이상이면 역외자금의 유입을, 100% 이하이면 유출을 의미
 * 총대출금 = 금융자금+재정자금
 * 총예수금 =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예금+CD+금융채
 5) 요구불예금회전율 = 월중 요구불예금 총지급액/월중 요구불예금 평잔

< 주 요 경 제 도 표 >

제조업 생산·출하·재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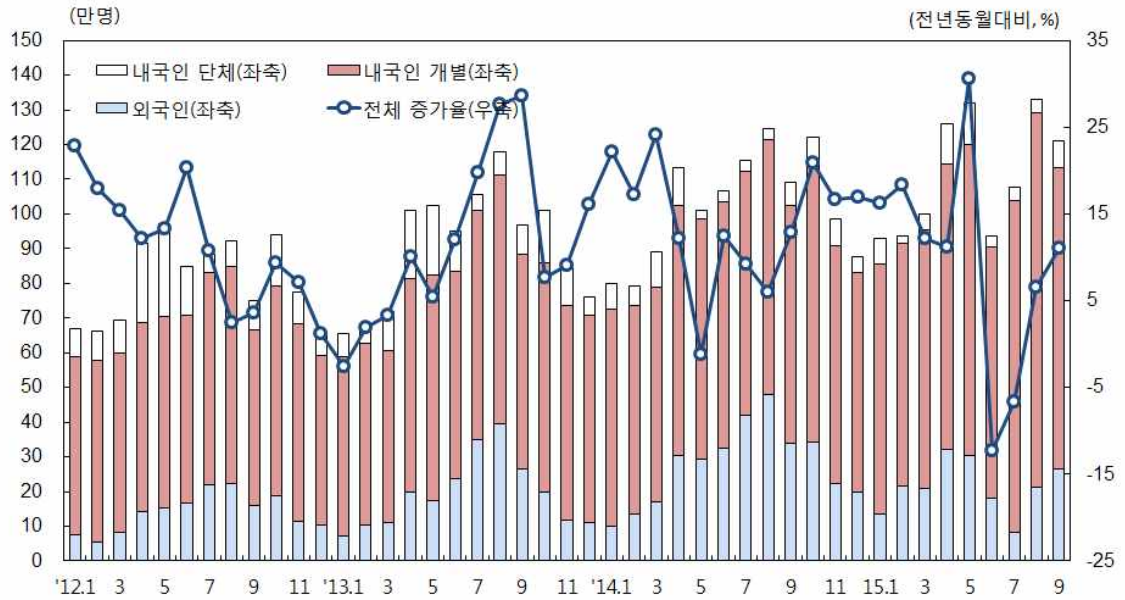


건설관련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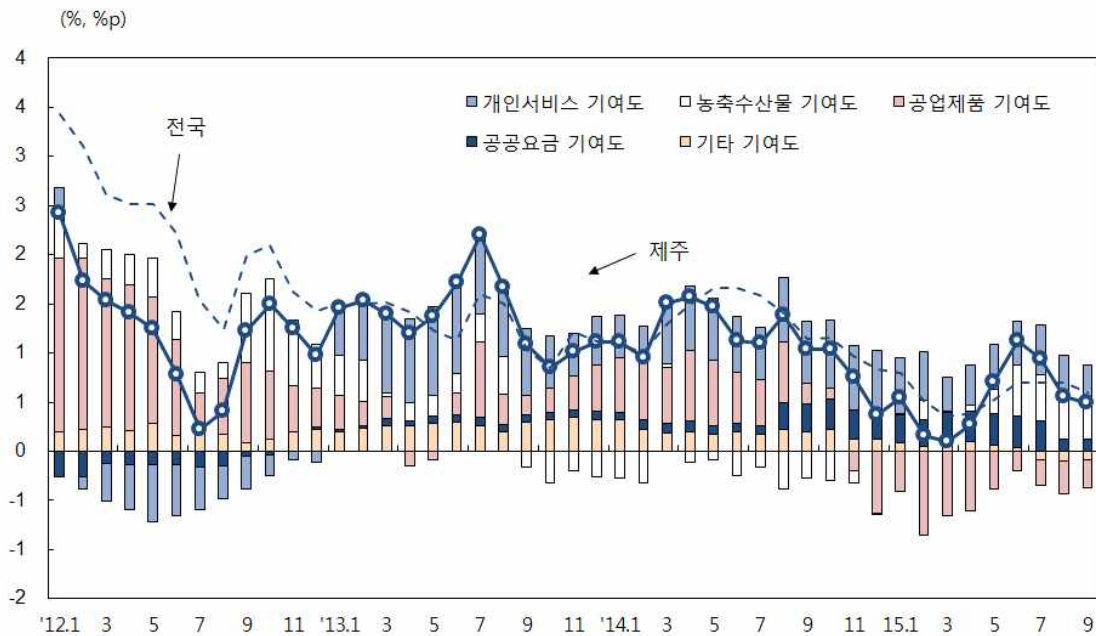


주 : 1) 건설수주액은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회원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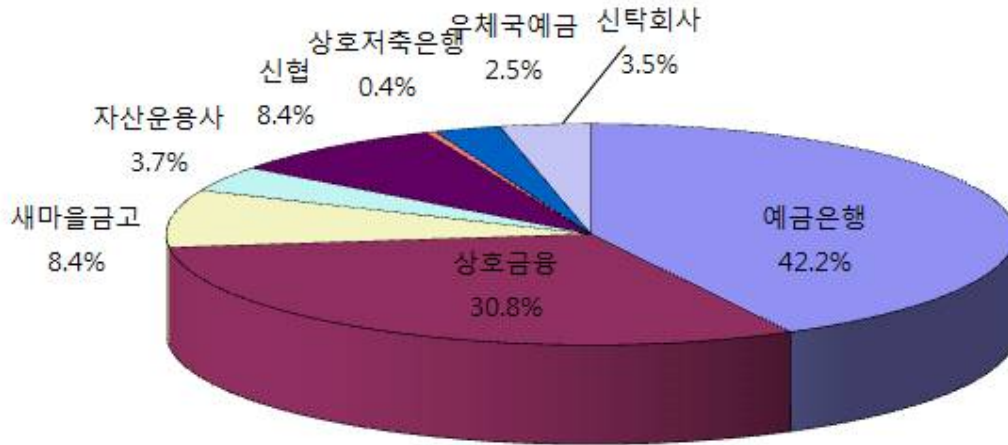
관광객 내도 추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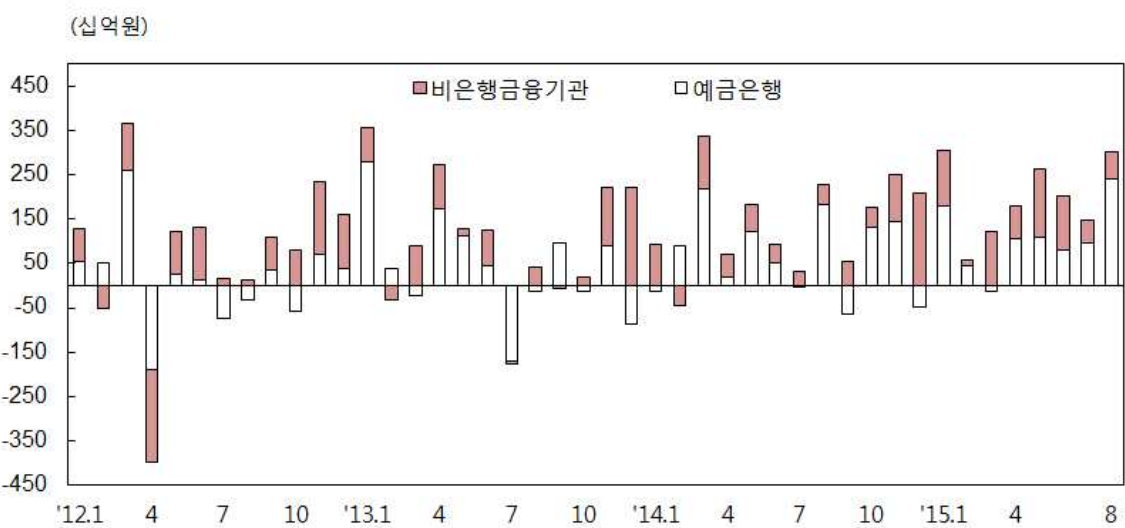


금융기관 수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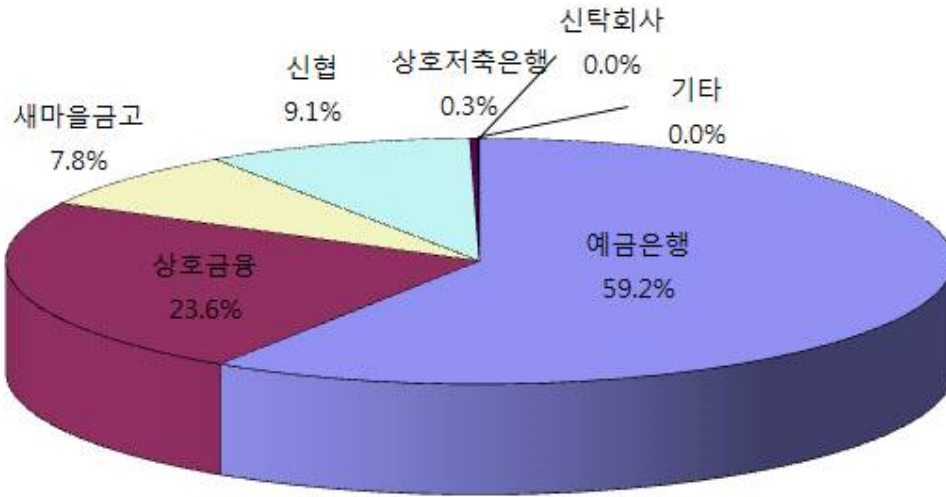


총 수신(2015. 8월말 현재 : 20조 7,397억원)

금융기관 수신증감액 추이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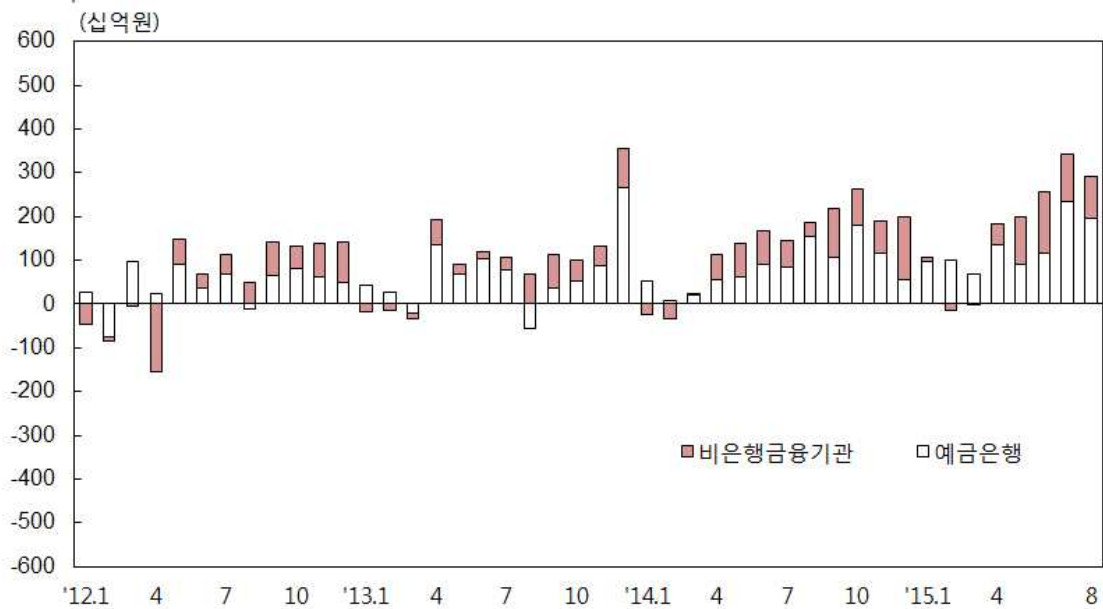
금융기관 여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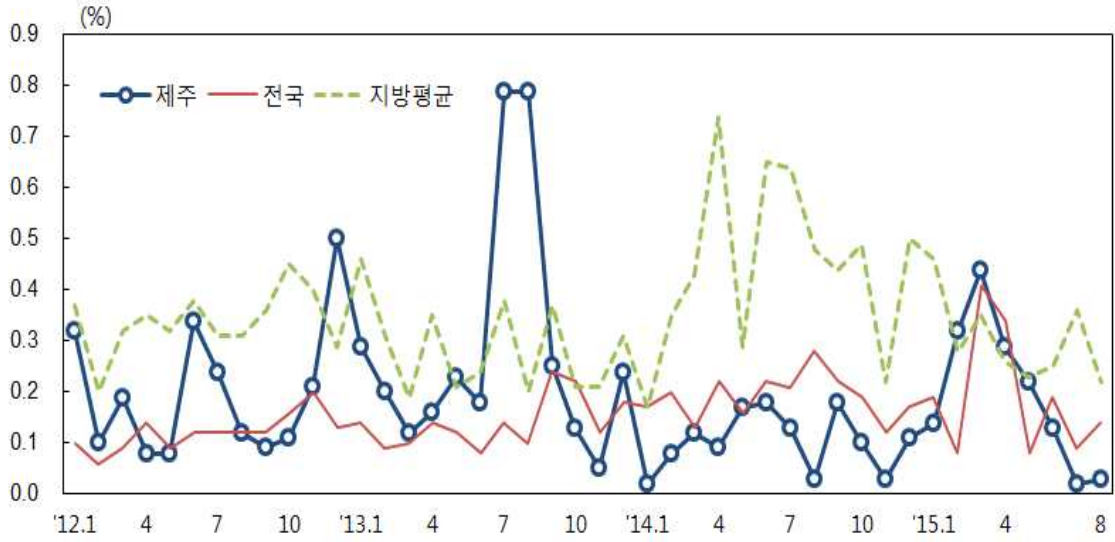
총 여신(2015.8월말 현재 : 15조 7,956억원)

금융기관 여신증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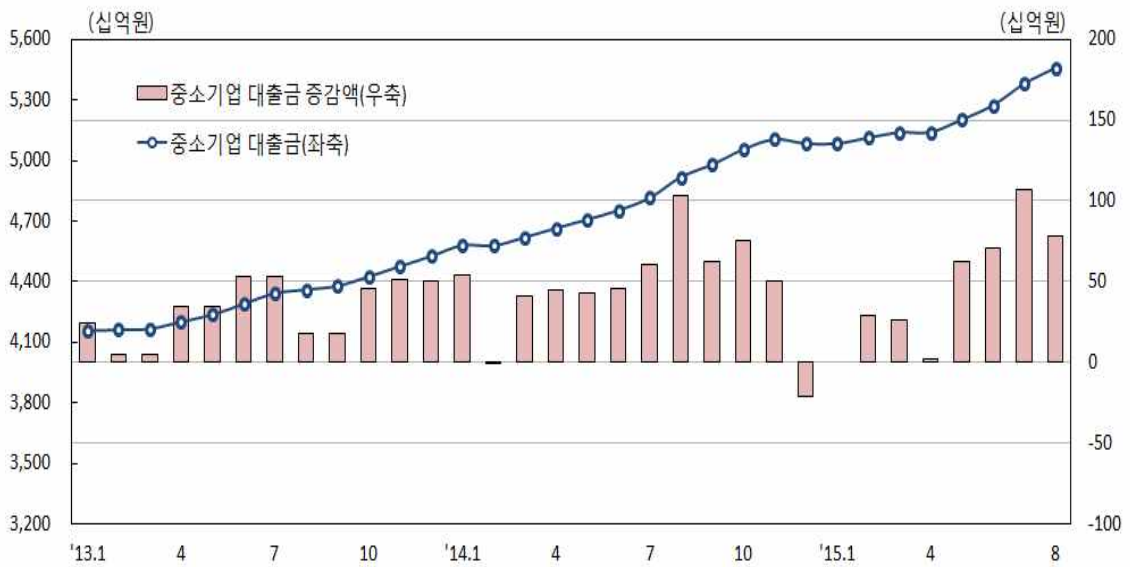
(전월대비)



어음부도율 추이 (전자결제액 조정전 기준)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추이



국 내 경 제 동 향

I. 실물경제동향

II. 금융경제동향

I. 실물경제동향

1. 내수 및 대외거래

◆ 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 증가, 수출 감소

- 7월중 소매판매는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증가로 전환 (전월대비 +1.9%)
 - 설비투자는 IT업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3% 증가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8% 증가
- 8월중 수출(393억달러, 통관기준)은 IT제품 수출이 증가 전환 하였으나 선박 및 석유·화학품 등 비IT제품 수출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4.7% 감소
 - 7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지속

내수 및 대외거래 관련지표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7월	3/4	4/4	1/4	2/4 ^{p)}	5월	6월 ^{p)}	7월 ^{p)}
소매판매액 (전년동기대비)	0.7	1.7	0.3	1.3	0.4	0.5	0.6	-0.3	-3.5	1.9
설비투자지수 (전년동기대비)	-0.8	5.2	2.3	-0.9	8.6	-1.6	-1.5	-1.4	4.2	1.3
건설기성액 (전년동기대비)	10.2	-0.8	-1.3	-2.7	-3.9	4.8	-2.6	2.2 ^{p)}	4.3	0.8
수출 ¹⁾	2.1	2.3	5.2	3.6	0.9	-3.0	-7.2	-11.0	-2.6	-3.4[-14.7]
수입 ¹⁾	-0.8	1.9	5.7	5.4	-2.8	-15.5	-15.6	-15.3	-13.6	-15.3[-18.3]
경상수지 ²⁾ (억달러)	811.5	892.2	78.8	225.7	272.3	234.5	288.6	86.2	121.1	101.1

주: 1) 통관기준, 확정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내는 8월중 잠정치

2) 2015.6월 지표는 확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관세청, 한국은행

2. 생산활동 및 고용

◆ 제조업 감소, 서비스업 증가, 취업자수 증가

□ 7월중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 통신·방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감소

* 세계 TV수요 둔화, 높은 재고수준 등에 기인

** 고가 휴대폰에 대한 수출 수요 둔화 등에 기인

□ 서비스업 생산은 음식·숙박업, 운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등 전월중 메르스 충격으로 큰 폭 감소했던 업종이 증가로 전환함에 따라 전월대비 1.7% 증가

□ 8월중 취업자수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5만 6천명 증가

○ 전월대비(계절조정)로는 9만 9천명 증가

○ 실업률(계절조정)은 3.6%로 전월대비 0.1%p 하락

생산 및 고용 관련지표

(S.A., 전기대비, %)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7월	3/4	4/4	1/4	2/4 ^{p)}	5월	6월 ^{p)}	7월 ^{p)}
제조업 생산	0.7	0.1	1.6	0.1	-1.0	0.0	-1.0	-1.7	2.4	-0.4
(전년동기대비)	-	-	4.3	1.2	-1.9	-1.0	-1.4	-3.0	1.5	-3.5
평균가동률	76.5	76.1	77.9	76.0	75.1	74.4	74.2	73.2	75.2	74.7
서비스업 생산	1.5	2.2	-0.3	0.9	1.0	0.5	-0.1	-0.4	-1.5	1.7
(전년동기대비)	-	-	2.9	2.6	2.6	2.8	2.5	2.4	0.9	2.2
취업자수 증감(만명) ¹⁾	38.6	53.3	12.8	21.2	7.3	16.3	-14.2	-2.2	2.1	12.2[9.9]
(전년동기대비) ¹⁾	-	-	50.5	51.7	42.2	35.4	30.8	37.9	32.9	32.6[25.6]
실업률 ¹⁾	3.1	3.5	3.4	3.5	3.5	3.7	3.8	3.9	3.9	3.7[3.6]

주: 1) 확정치, []내는 8월중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동향」

3. 물가 및 부동산가격

◆ 소비자물가 오름세 유지, 부동산가격 상승

- 8월중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는 0.7% 상승하여 전월(0.7%)과 동일한 오름세를 보임
 - 전월대비로는 석유류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농축산물가격이 오르면서 0.2% 상승(7월 0.2%)
 -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은 전년동월대비 2.1% 상승(전년동월대비 7월 2.0% → 8월 2.1%, 전월대비 0.2% → 0.2%)
- 아파트 매매가격은 높은 전세가에 따른 매수전환 등이 가격 오름세를 주도하여 전월대비 0.5% 상승(전월대비 7월 0.4% → 8월 0.5%)
 - 전세가격도 전월대비 0.5% 상승(전월대비 0.5% → 0.5%)

물가 및 부동산가격

(전기말월대비, %)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8월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소비자물가	1.1	0.8	0.2	0.1	0.3	-0.5	0.5	0.4	0.0	0.2	0.2
	(1.3)	(1.3)	(1.4)	(1.6)	(1.4)	(1.0)	(0.6)	(0.5)	(0.7)	(0.7)	(0.7)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1.9	1.6	0.1	0.5	0.2	0.2	1.2	0.4	0.0	0.2	0.2
	(1.6)	(2.0)	(2.4)	(2.2)	(2.2)	(1.7)	(2.3)	(2.1)	(2.0)	(2.0)	(2.1)
아파트 매매가격	0.3	2.4	0.1	0.4	0.6	0.8	0.9	1.5	0.5	0.4	0.5
아파트 전세가격	7.2	4.4	0.2	0.7	0.8	1.1	1.3	1.8	0.6	0.5	0.5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II. 금융경제동향

1. 금 리

- 국고채(3년)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한국 시각 9.18일) 이후 사상 최저치(9.30일 1.57%)까지 하락하였다가 10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 (15.8월말 1.74%(A) → 9.18일 1.64% → 9월말 1.57% → 10.13일 1.64%(B), B-A -10bp)
 - 회사채(3년)금리는 우량물·비우량물 모두 소폭 상승 (15.9.1~10.13일중 AA-등급 +3bp, BBB+등급 +4bp)
 - 9월중 외국인 채권투자는 전월에 이어 감소
 -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 증감(조원): 15.6월 -0.4 → 7월 -2.6 → 8월 -0.2 → 9월 -0.9
- 주요 단기시장금리는 소폭 하락 (15.9.1~10.13일중 통안증권(91일) -3bp, 은행채(3개월) -3bp, CD(91일) -5bp)

주요 시장금리

(기말기준, %, %p)

	13년	14년	15.7월	8월(A)	9월	10.13일(B)	B - A
■ 기준금리	2.50	2.00	1.50	1.50	1.50	1.50	0.00
■ 국고채(3년)	2.86	2.10	1.77	1.74	1.57	1.64	-0.10
■ 통안증권(91일) ¹⁾	2.57	2.08	1.53	1.54	1.51	1.51	-0.03
■ 은행채(3개월) ¹⁾	2.65	2.13	1.55	1.57	1.54	1.54	-0.03
■ CD(91일)	2.66	2.13	1.64	1.63	1.59	1.58	-0.05
■ CP(A1, 91일)	2.90	2.33	1.70	1.70	1.69	1.69	-0.01
■ 회사채(3년, AA-) ¹⁾	3.37	2.44	2.07	2.05	1.99	2.08	+0.03
■ 회사채(3년, BBB+) ¹⁾	6.68	5.93	5.56	5.53	5.47	5.57	+0.04

주 : 1) 민간채권평가사 평균

2. 주 가

- 코스피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완화, S&P의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 상향 조정(9.15일)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

(기말기준)	13년	14년	15.7월	8월	9월	10.13일
■ 코스피	2,011	1,916	2,030	1,941	1,963	2,019

- 9월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전월에 비해 순매도 규모가 축소

(기간중, 코스피+코스닥)	15.6월	7월	8월	9월	10.1~13일
■ 외국인 순매수(조원)	-1.1	-1.9	-4.3	-1.9	+0.6

3. 자금흐름

□ 9월중 은행 수신은 전월에 이어 큰 폭 증가

(15.8월 +14.4조원 → 9월 **+14.4조원**)

- 수시입출식예금(+12.4조원 → +16.2조원)은 가계자금이 추석상여금 등으로 늘어나고 기업의 단기자금도 유입되면서 큰 폭 증가
- 정기예금(+1.8조원 → -3.8조원)은 법인자금을 중심으로 감소
- CD(+1.0조원 → +1.4조원)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은행채(+2.6조원 → +0.7조원)는 소폭 증가

□ 자산운용사 수신은 분기말 계절적 요인 등으로 큰 폭 감소로 전환 (15.8월 +1.7조원 → 9월 **-7.5조원**)

- MMF(-3.8조원 → -10.5조원)는 금융권의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자금인출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
- 주식형펀드(+2.1조원 → +0.9조원)는 주가 반등으로 저가매수자금 유입이 줄어들면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채권형펀드(+0.4조원 → +0.2조원)는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

주요 금융기관 수신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3		2014		2015			15.9월말 잔액	
	연중 ³⁾	9월	연중 ³⁾	9월	연중 ³⁾	7월	8월		9월
■ 은행 ¹⁾	41.0(43.7)	6.5	115.4(67.0)	3.7	62.3(68.7)	0.6	14.4	14.4	1,353.1
(수시입출식 ²⁾)	27.6	4.7	50.2	3.9	70.6	-6.1	12.4	16.2	491.3
(정기예금)	-12.4	-1.4	13.2	-0.7	-14.7	1.9	1.8	-3.8	542.5
(C D)	0.9	-2.1	-5.5	0.1	7.0	1.7	1.0	1.4	26.0
(은행채)	16.5(19.2)	5.5	55.4(6.9)	0.1	0.4(6.8)	0.8	2.6	0.7	225.2
■ 자산운용사	17.7	1.8	42.4	3.4	46.8	13.9	1.7	-7.5	424.0
(MMF)	3.3	6.9	16.0	-0.5	18.9	9.9	-3.8	-10.5	101.2
<법 인>	0.5	6.1	14.1	-0.7	14.8	9.7	-3.8	-10.7	74.1
(주식형)	-9.1	-2.9	-6.2	-0.4	1.4	1.3	2.1	0.9	80.7
(채권형)	9.2	1.0	14.8	1.4	13.8	1.1	0.4	0.2	84.6
(혼합형)	3.4	-0.8	5.1	0.8	2.6	1.3	0.6	0.2	40.3
(신중펀드)	10.9	-2.3	12.7	2.0	10.1	0.3	2.4	1.7	117.2

주 :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예금 제외 기준
3) () 내는 은행채 이관·편입 효과 제외시

2) 실세요구불예금 포함

4. 기업자금 및 가계대출

- 9월중 은행 기업대출(원화)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증가 (15.8월 +6.0조원 → 9월 +5.7조원)
 - 대기업대출(+0.7조원 → +0.2조원)은 분기말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자금상환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
 - 중소기업대출(+5.3조원 → +5.5조원)은 은행들의 추석자금 지원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

- 회사채(공모)는 만기도래 규모 확대의 영향으로 순상환 전환 (15.8월 +0.1조원 → 9월 -0.8조원)

- CP는 일부 기업의 단기자금 수요 등으로 소폭 순발행 (15.8월 -0.7조원 → 9.1~20일 +0.0조원)

- 주식발행은 일부 대기업의 기업공개에 주로 기인하여 전월보다 확대 (15.8월 0.5조원 → 9월 0.8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3		2014		2015			15.9월말 잔액	
	연중	9월	연중 ⁷⁾	9월	연중	7월	8월		9월
■ 은행 원화대출 ¹⁾	34.8	5.8	52.0(43.0)	3.5	44.4	4.7	6.0	5.7	720.2
(대 기업) ²⁾	8.2	1.8	18.5(10.1)	0.5	-3.2	-0.3	0.7	0.2	165.6
(중소기업) ²⁾	26.6	4.1	33.5(32.9)	3.0	47.7	5.0	5.3	5.5	554.6
<개인사업자>	17.1	1.3	18.8(18.8)	1.6	23.3	3.7	3.3	3.0	232.6
■ 사모사채 인수 ³⁾	-2.1	-0.3	-1.1(-1.1)	-0.1	0.4	-0.1	-0.0	-0.1	6.2
■ 회사채 순발행	3.1	1.4	1.8	-0.6	2.6	0.1	0.1	-0.8	..
■ CP 순발행 ⁴⁾	1.0	1.1	-5.0	-1.0	-0.8	0.1	-0.7	0.0 ⁶⁾	21.9 ⁶⁾
■ 주식발행 ⁵⁾	6.5	0.1	9.6	0.2	4.6	1.0	0.5	0.8	..

주: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2) 기업구분 변경에 따른 대출재분류를 반영한 기준
 3) 국내예금은행 4) 은행연합회 CP거래정보 기준
 5)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합계 6) 15.9.1~20일 기준
 7) ()내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합병에 따른 기업대출 편입분 제외 기준

□ 9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

(15.8월 +7.7조원 → 9월 +6.3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금리 수준, 주택거래 호조* 등으로 전월과 비슷한 6.0조원 증가

*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천호) : 15.7월 12.0 → 8월 10.5 → 9월 9.1#

동 거래량은 06~14년 9월중 평균 거래량(5.8천호)을 크게 상회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추석 상여금 지급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축소된 0.3조원 증가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3		2014		2015			15.9월말 잔액	
	연중	9월	연중	9월	연중	7월	8월		9월
은행 가계대출 ¹⁾²⁾	23.3	0.9	37.3	3.7	54.9	7.3	7.7	6.3	615.8
[모기지론양도 제외시]	13.9	0.2	38.7	4.3	22.0	1.1	7.9	5.4	541.1
■ 주택담보대출 ²⁾³⁾	20.7	1.1	35.5	3.5	51.2	6.4	6.0	6.0	458.0
[모기지론양도 제외시]	11.3	0.3	36.8	4.1	18.3	0.2	6.2	5.1	383.3
■ 마이너스통장대출등	2.8	-0.1	1.9	0.2	3.8	0.9	1.7	0.3	1157.1

주 :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및 은행 대출채권 양도 포함, 기양도분에 대한 상환액은 차감

3) 주택관련대출 포함

5. 통화총량

□ 9월중 M2증가율(평잔기준, 전년동월대비)은 전월보다 상승한 9%대 중반으로 추정 (15.7월 9.3% → 8월 9.2% → 9월 9%대 중반^e)

- 은행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

<붙임 1>

주요 금융기관 수신

(기간중 말잔 증감, 억원)

	15.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5.9월말 잔액
은행계정¹⁾	-757	156,082	198,542	5,973	143,569	144,304	13,530,601
실세요구불	32,184	63,605	55,995	-26,190	66,721	57,045	1,376,636
저축성예금	-36,049	80,271	115,339	-16,530	73,121	73,341	9,576,070
(정기예금)	-43,031	13,308	-13,363	18,517	17,701	-37,655	5,425,326
(수시입출식)	190	68,864	125,218	-35,032	57,086	105,215	3,536,510
CD+RP+포지어음	6,792	20,532	-1,044	40,481	-22,750	6,551	326,373
은행채	-3,685	-8,326	28,251	8,211	26,478	7,366	2,251,523
자산운용사²⁾	130,759	-27,190	48,673	138,793	16,763	-74,787	4,240,367
주식형펀드	-19,047	-11,872	6,923	12,803	20,841	8,712	806,855
혼합형펀드	9,737	9,405	9,177	13,209	6,235	2,324	402,872
채권형펀드	38,453	-777	22,908	11,096	3,887	2,314	846,312
M M F	111,258	-32,865	-36,492	98,986	-38,113	-105,245	1,012,373
신증펀드 ³⁾	-9,642	8,919	46,157	2,699	23,913	17,108	1,171,955
은행신탁	25,788	61,917	-44,962	67,274	15,221	-58,525	1,608,094
특정금전신탁	25,482	61,768	-60,272	67,832	14,750	-60,985	946,297
총 금 사	6,884	1,779	-260	-2,132	5,061	2,266	117,449
발행어음	6,034	577	-2,005	3,088	4,050	245	85,880
C M A	850	1,202	1,745	-5,220	1,011	2,021	31,569
(매출어음)	1,882	630	-11,687	9,606	50	-14,196	130,291
우체국 예금	-1,922	-3,376	3,758	2,746	-5,007	3,082⁴⁾	612,431 ⁴⁾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28,526	-2,218	6,722	-8,710	1,205	10,532	219,685

주 :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예금 제외 기준

2) 투자신탁 + 투자회사 기준

3) 파생상품펀드 등 간접투자펀드 운용액 포함

4) 15.9.20일 기준

<붙임 2>

기업¹⁾ 자금조달 및 가계대출

(기간중 증감, 억원)

	15.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5.9월말 잔액
은행 기업대출²⁾	62,031	36,836	23,109	47,386	60,221	56,720	7,202,040
대기업	-3,887	-19,953	-19,288	-2,987	7,294	1,884	1,656,461
중소기업	65,918	56,789	42,397	50,373	52,927	54,836	5,545,579
회사채 순발행³⁾	7,238	19,000	10,612	1,252	1,027	-7,688	..
CP 순발행⁴⁾	15,248	-1,532	-20,054	749	-6,657	61⁷⁾	219,040 ⁷⁾
은행 가계대출²⁾⁵⁾	84,567	73,455	81,212	72,939	77,014	62,963	6,158,191
[모기지론양도 제외시 ²⁾]	87,246	16,325	-105,434	10,965	78,567	54,197	5,410,715
주택담보대출⁵⁾⁶⁾	80,314	63,010	68,427	64,196	60,294	59,674	4,580,404
[모기지론양도 제외시 ⁶⁾]	82,993	5,880	-118,219	2,223	61,848	50,908	3,832,928

- 주 : 1) 일반기업 기준 2) 신탁계정 포함 3) 공모회사채 기준(ABS제외, P-CBO 포함)
 4) 종금사, 증권사 및 은행신탁 취급분
 5) 모기지론양도 포함 기준(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및 은행 대출채권 양도 포함, 기양도분에 대한 상환액은 차감)
 6) 주택관련대출 포함, 신탁계정 제외
 7) 15.9.20일 기준

제 주 경 제 브 리 프

가구소형화의 진전 및 제주관광에의 시사점

I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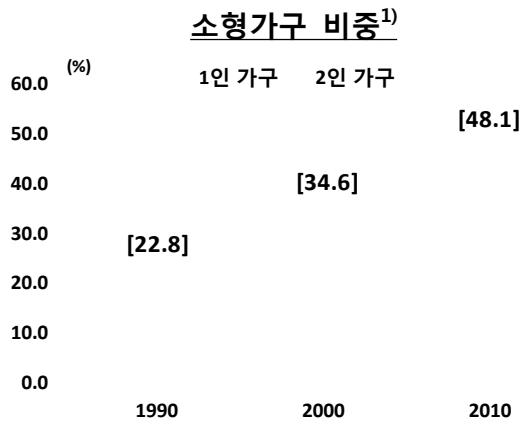
- 전세계적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 경제(Solo Economy)」에 대한 관심이 점증
 - 미국의 경우 싱글들(singletons)의 일인당 연평균 소비액이 34,000달러(2010년 기준)로 가족가구의 일인당 소비액보다 높아 향후 1인 가구의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전망*
 - * 美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자신의 저서「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에서 향후 싱글들의 영향이 커질 것임을 주장
 - 이에 더하여 2인 가구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 못지않은 시간적 여유와 더 큰 소비여력을 가지고 있음
 - 2인 가구는 대부분이 부부가구로서 부양해야할 별도의 동거가족이 없는 1세대 가구라는 점에서 삶의 방식 및 소비 유형이 1인 가구와 유사
 - 또한 맞벌이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동시에 1인 가구에 비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여력이 1인 가구보다 높음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1~2인 가구(이하 소형가구)의 증가는 관광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제주도의 경우 내도 방문 관광객의 72.8%(2014년 기준)가 내국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가구소형화의 진전은 제주관광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
- ⇒ 장래가구추계, 가계동향조사 등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가구 소형화와 관광산업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제주관광에의 시사점을 도출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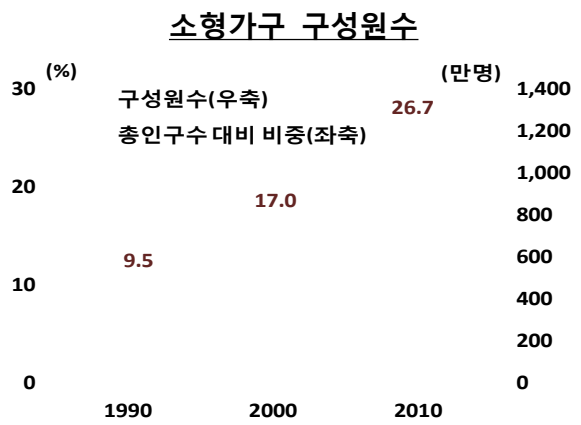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가구소형화 현황 및 진전 배경

현황

- 우리나라의 **소형가구**는 1990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10년에는 전체가구(기준 1734만 가구)의 **절반 가까이** 이룸
 - 전체가구 중 소형가구의 비중은 1990년 22.8%에서 2010년 **48.1%**로 높아졌으며, 총 인구대비 비중도 동 기간 중 9.5%에서 **26.7%**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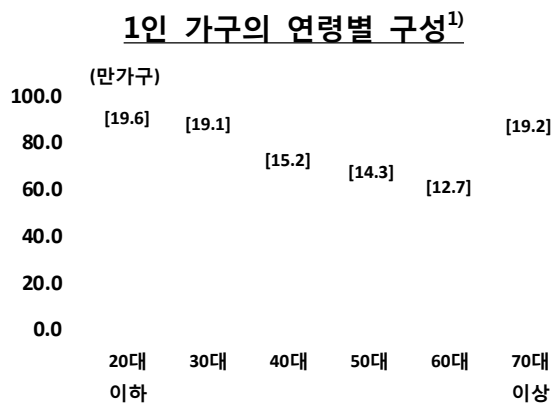


주: 1) []는 1,2인 가구 비중의 합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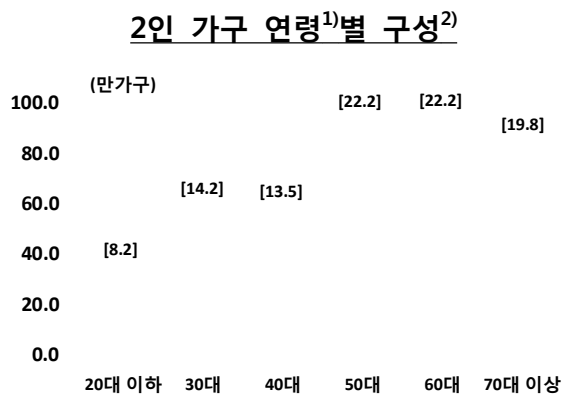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통계청

- 연령대별로는 1인 가구의 경우 **3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비중이 높고, 2인 가구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약 2/3(64.2%)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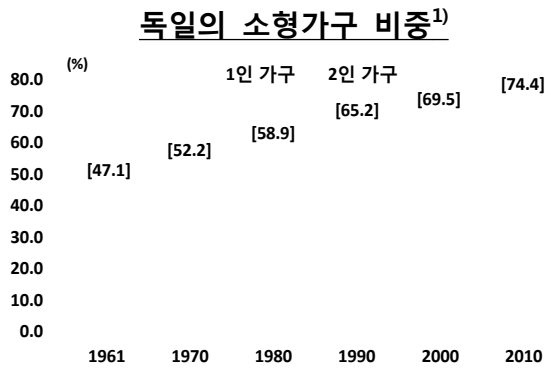
주: 1) []는 전체 1인 가구내 비중(%)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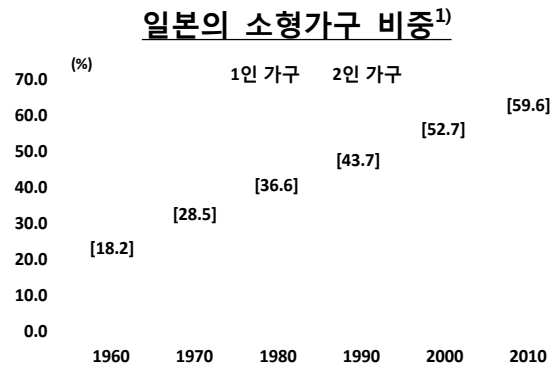
주: 1) 가구주 기준
 2) []는 전체 2인 가구내 비중(%)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통계청

□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구소형화는 그간 꾸준히 진전되어 왔으나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그 정도가 낮은 편**

○ 독일 및 일본의 소형가구 비중은 각각 1960년대 및 1990년대에 50%를 넘었으며, **지금은 60~70%대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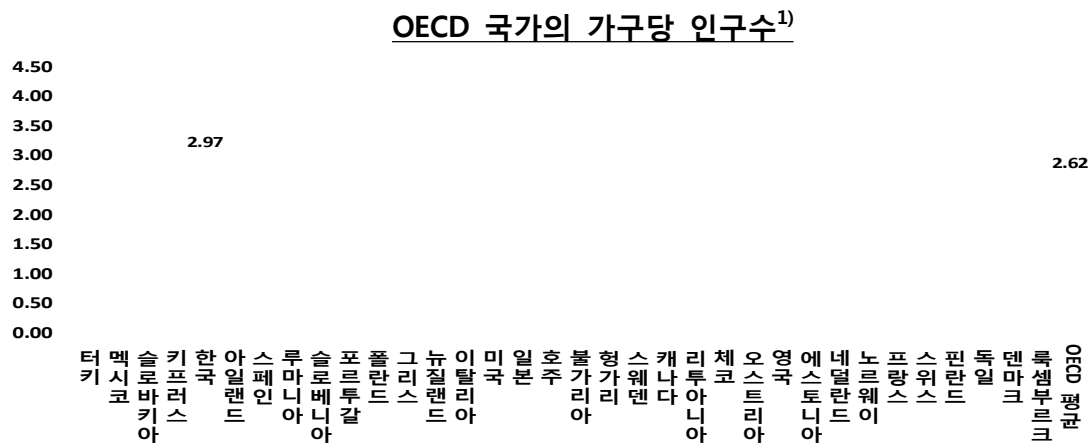


주: 1) []는 1,2인 가구 비중의 합계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주: 1) []는 1,2인 가구 비중의 합계
자료: 日本 總務省統計局

○ 가구당 구성원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2005년 기준)가 2.97명으로 OECD 평균(2.62명) 보다 많고 OECD 34개국중 5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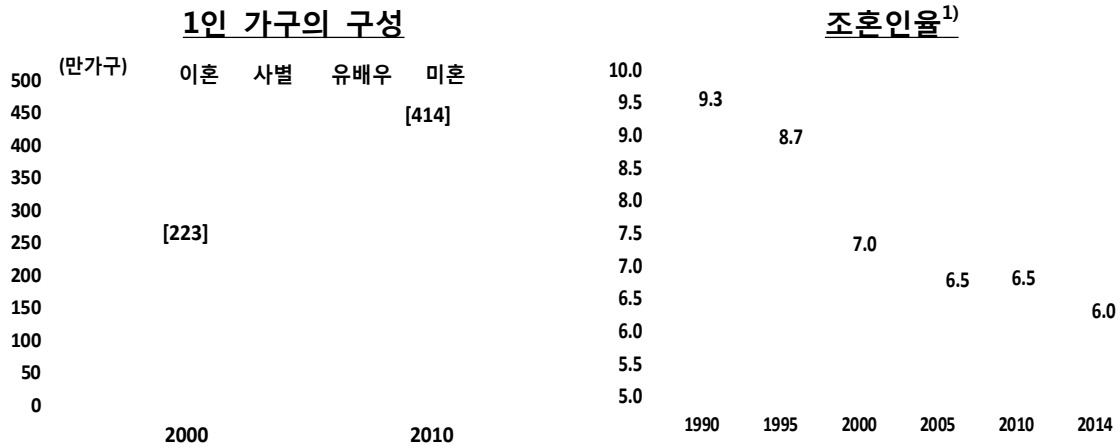
주: 1) 200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로 나라마다 시점에 차이가 있음. 한국은 2005년 기준
자료: OECD Family Database

□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구성원수가 2030년에 2.2명**으로 줄어들고 **소형가구는 전체가구의 2/3(65.6%, 1,424만명)**에 이르는 등 가구소형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장래가구추계[2010])

○ 총인구대비 소형 가구의 인구 비중은 약 45% 수준(2,141만명)에 달할 전망

가구소형화의 진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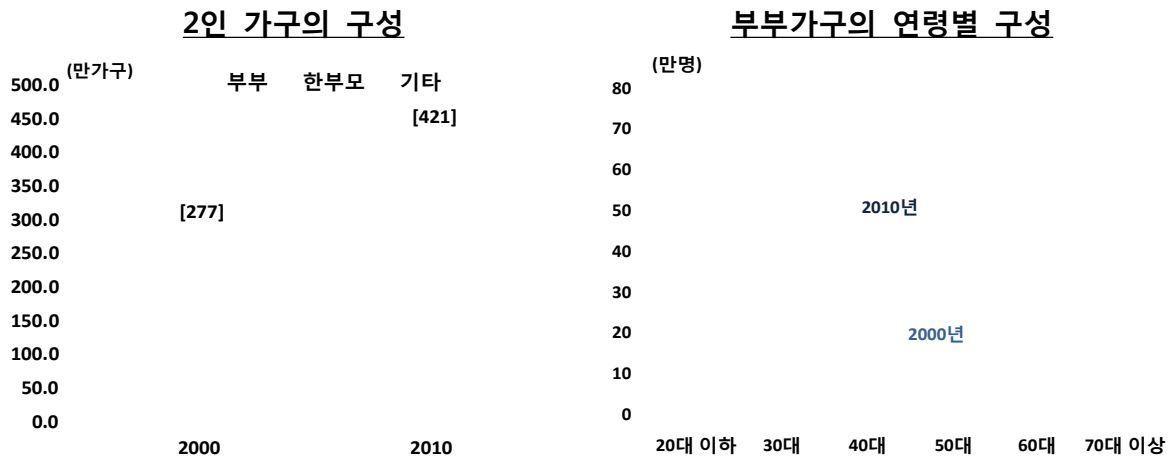
□ (1인 가구) **非婚 및 晩婚** 증가, **자녀 분가**의 일반화, 고령화에 따른 **死別** **인구 증가** 등에 주로 기인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주: 1) 연앙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2인 가구) 자녀 독립 후 부부만 남는 **빈둥지가구(empty nest)**의 증가가 주원인이며, 이 외에 출산 기피 등에 따른 무자녀 부부가구 증가, 이혼 등에 따른 한부모 가정 증가 등도 한 요인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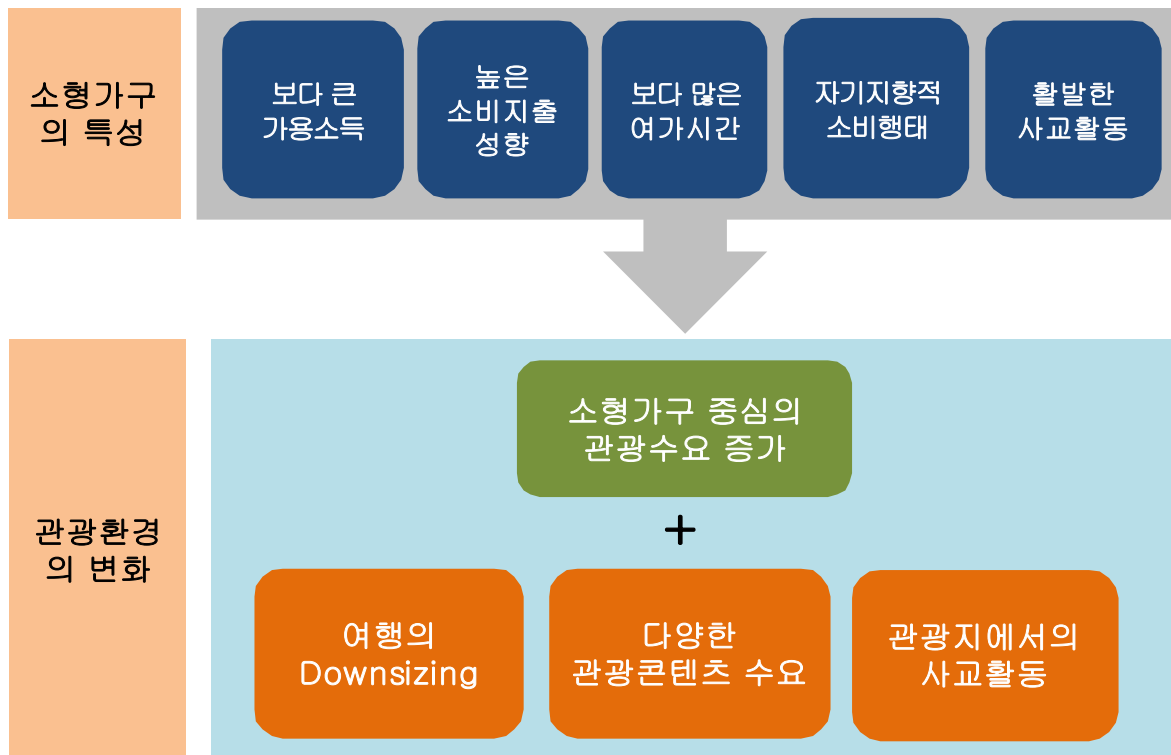
Ⅲ

가구소형화 진전에 따른 관광환경의 변화

◆ 가구소형화는 소형가구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여행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행태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 기존의沒개성적이고 소속집단 중심의 단체관광이 감소하는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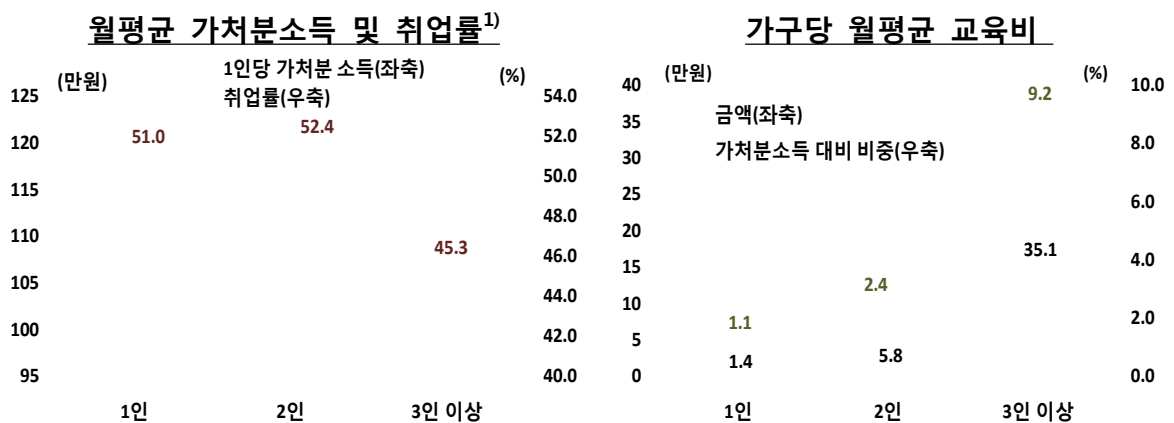
① 여행의 Downsizing, ② 다양한 문화콘텐츠 수요 증가 ③ 관광지에서의 사교활동 증대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관광행태를 유발



1 소형가구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

① (보다 큰 가용소득) 일반적으로 소형가구의 1인당 가용소득은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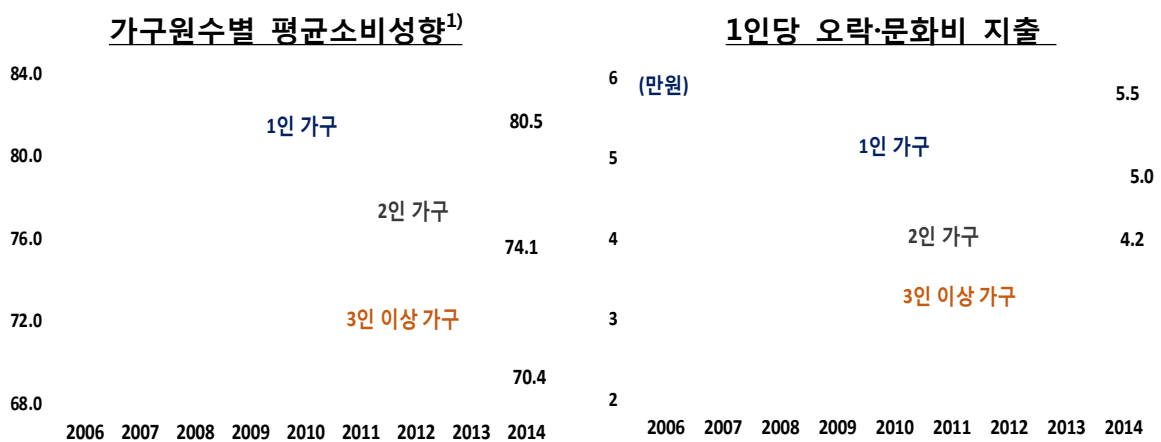
- 총구성원수 대비 취업률이 높아 1인당 **가처분소득이 큰 반면, 교육비와 같은 부양비용은 적음**



주: 1) 총취업인원/총구성원수, 50대 이하
 자료: 가계동향조사(2014), 통계청

자료: 가계동향조사(2014), 통계청

② (높은 소비지출 성향)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가운데 **오락·문화지출과 같은 재량적 소비지출(discretionary consumption)이 큰 편**



주: 1)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처분가능소득×100
 자료: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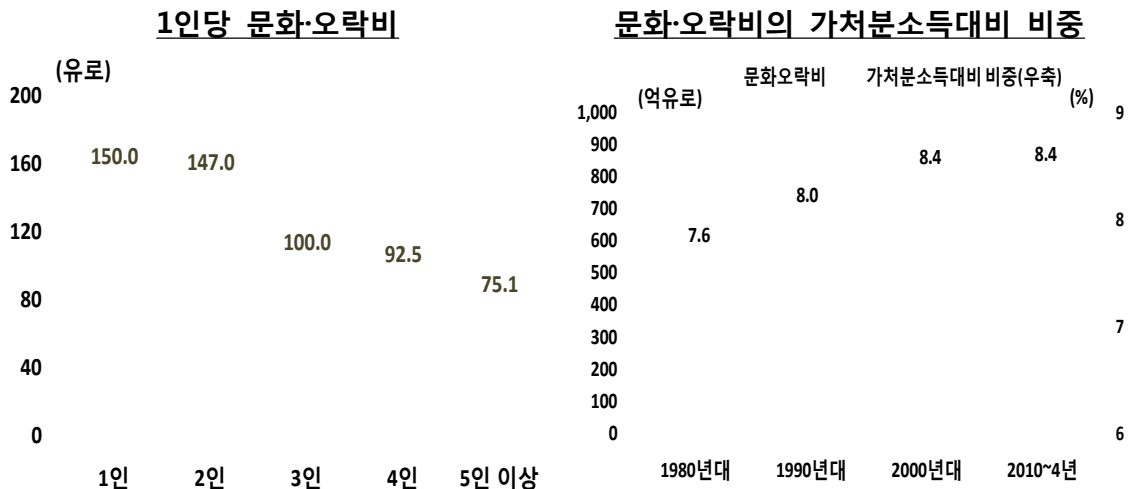
자료: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참고 1>

독일의 가구소형화와 문화·오락비지출

□ 독일의 경우 소형가구의 비중이 2010년대에 70%를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문화·오락비 지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문화·오락비 지출 비중이 꾸준히 확대**

○ 경제 전체 가처분소득 대비 문화·오락비의 비중은 1980년대 7.6%에서 1990년대 8.0%를 돌파한 데 이어 2000년 이후에는 8.4%로 계속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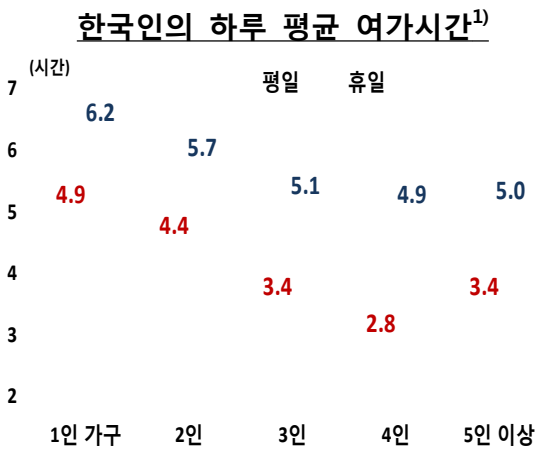


주: 1) 2013년 기준 월평균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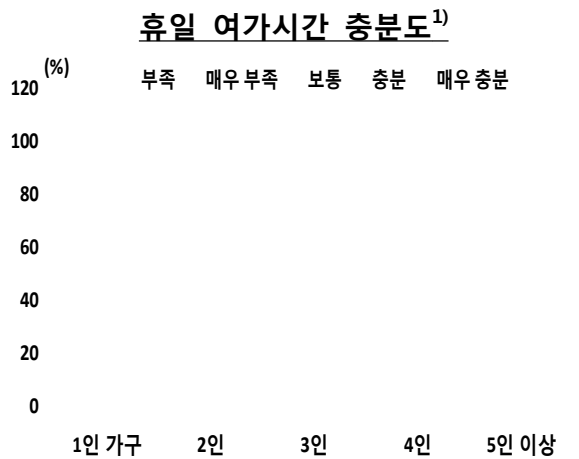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③ (보다 많은 여가 시간)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가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라** 여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음

- 자녀 양육 및 부모 봉양을 위한 가사부담이 적기 때문에 특히 직장에 나가지 않는 **휴일의 여가시간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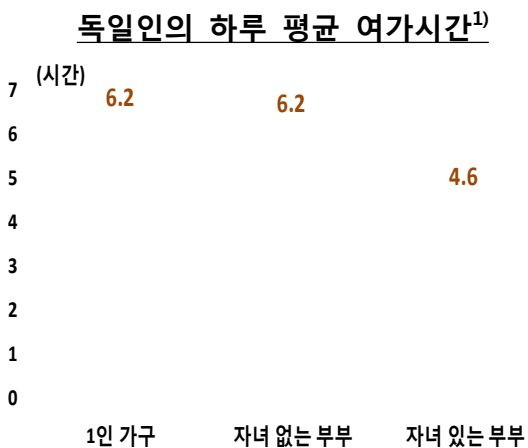


주: 1) 조사된 가구원 1인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
 자료: 국민여가활동조사(2012),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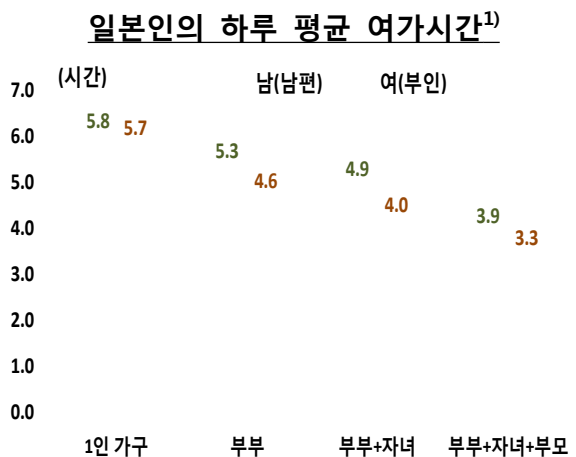


주: 1) 휴일 여가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비율
 자료: 국민여가활동조사(2012), 문화체육관광부

- 독일, 일본 등 가구소형화가 진전된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1인 및 부부가구가 부양해야 할 자녀나 부모가 있는 가구에 비해 여가 시간이 많음



주: 1) 조사된 가구원 1인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
 자료: Time Use Survey(2013), Statistisches Bundesamt



주: 1) 조사된 가구원 1인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
 자료: Survey on Time Use and Leisure Activities(2011), 日本 總務省統計局

④ (자기지향적 소비행태) 자기 자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개인적 만족을 위한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려는 경향이 높음

○ **청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일상 생활비는 줄이면서 **자기가치 제고 및 여가활동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자 함

— 이은미(2012)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개성추구 및 자기 브랜드 제고를 위해 패션, 미용, 취미 등에 대한 지출 확대에 관대한 편

○ **DINK(Double Income No Kid)족**은 1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자신에 대한 투자에 지대한 관심

○ **빈둥지가구**의 경우도 자녀를 떠나보낸 후 **자신의 삶의 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

— 英 리서치&컨설팅 전문기관인 Datamonitor社(2004)는 ‘50~64세’ 빈둥지가구들이 높은 가처분소득과 자기만족적(self-rewarding)인 소비행태를 바탕으로 영국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1인 가구의 향후 지출 增減 희망 항목¹⁾

식품	16.0	
의류·패션	16.4	줄이고 싶은 항목
통신비	33.6	
외식	39.2	
취미	26.0	
건강	32.0	늘리고 싶은 항목
레저·여가	32.8	
자기계발	36.0	
여행	41.6	
		(%)
	-10	10
	30	50
	70	

영국의 1인당 주평균 소비지출

(파운드)

350	1인 가구
300	2인 가구
250	(은퇴전)
200	(은퇴후)
150	3인 이상 가구
100	
5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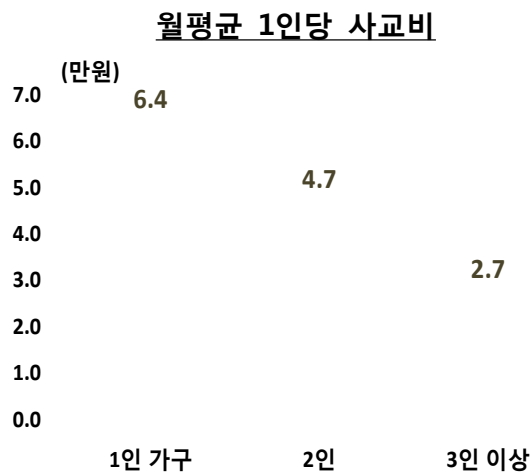
주: 1) 20대 후반~40대 전반 1인 가구원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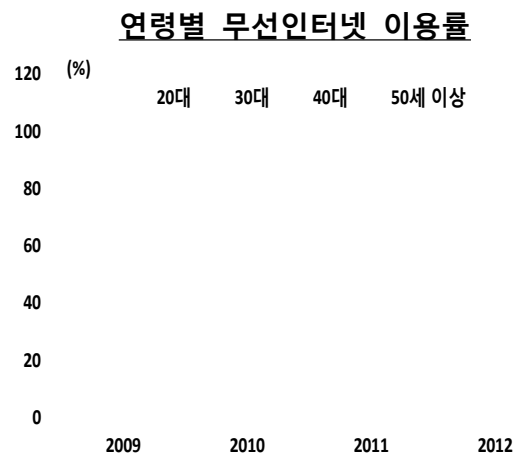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㉔ (활발한 사교활동)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은 대신 **활발한 사교활동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려는 경향이 높음

- 소형가구의 1인당 사교비는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1.74배(2인 가구) ~2.37배(1인 가구) 많음
-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메신저, SNS 등의 서비스가 용이해짐에 따라 소형가구의 사교활동이 더욱 활발해짐**



자료: 가계동향조사(2014),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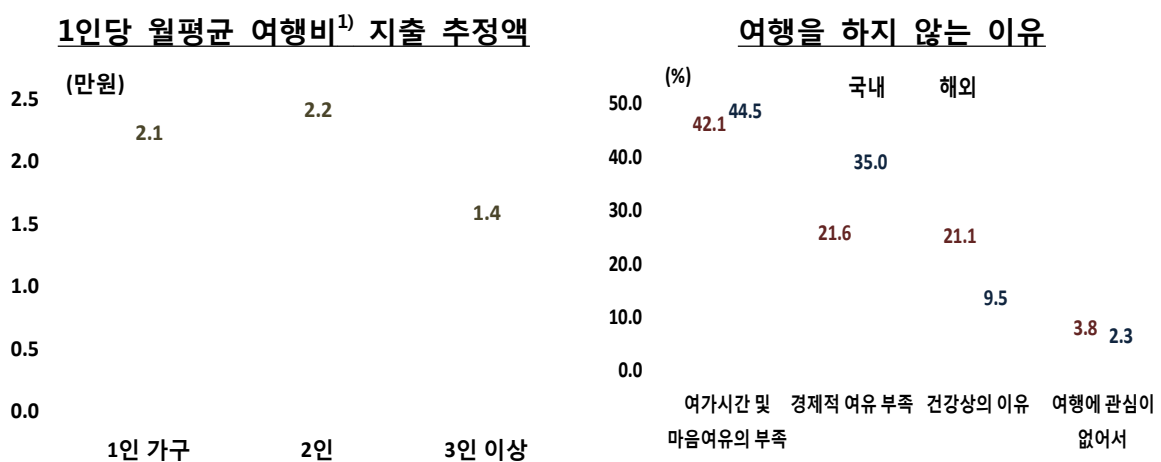
자료: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 통계청

2 관광환경의 변화

1] (관광수요 증가) 여행비 지출이 많은 **소형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광수요가 증대** 될 것으로 기대

- 가계동향조사(2014)에 따르면, **1~2인 가구의 여행비 지출은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1.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Nicolau & Mas (2005)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 규모가 작을수록 관광여행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 국민여행실태조사(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행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가시간 및 마음여유의 부족’ 과 ‘경제적 여유 부족’ 을 주로 지적**
- 하동현·변우희·조문식(2012)은 **여행의 장애요인으로 비용, 시간 부족 등 6가지***를 제시

* 경제적 비용, 시간 부족, 건강상 제약, 가족 문제, 관심 부족, 두려움



주: 1)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서 기차, 시외버스, 항공, 기타여행서비스, 단체여행비, 숙박비를 더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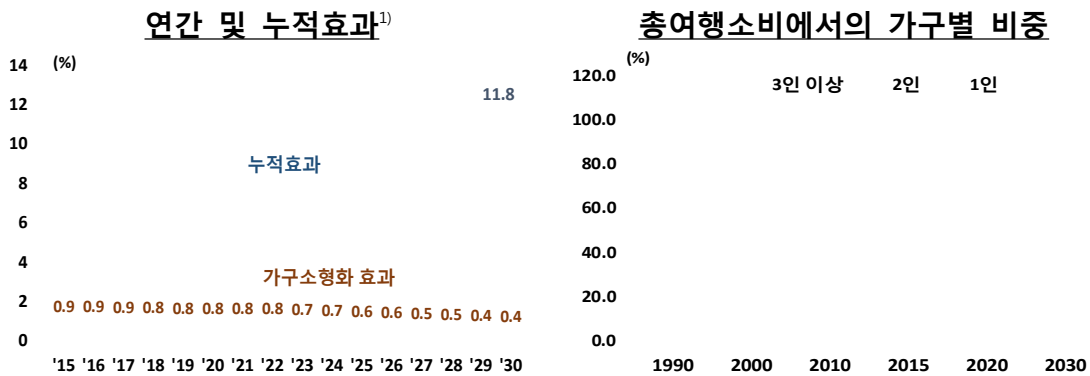
자료: 국민여행실태조사(2014),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가계동향조사(2014), 통계청

- 한편, 우리나라의 가구소형화 진전에 따른 여행소비 증가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연평균 0.8%씩 늘어 2015~2030년중 총 여행소비 누적증가율이 1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내용은 <참고 2: 가구소형화에 따른 여행소비 증가효과 추정방법> 참조

- 소형가구의 여행소비가 **국민 전체 여행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7.8%에서 **2030년에는 54.3%로 늘어날 전망**



주: 1) 가구구조를 제외한 여타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

<참고 2>

가구소형화에 따른 여행소비 증가효과 추정방법

□ 2014년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여행비 추정액을 이용하여 가구소형화에 따른 여행비 증가효과를 추정

- 가구별 총실질여행비*는 가구별 1인당 여행비가 2014년 기준으로 고정되었다고 가정하고 각 가구유형당 인구수를 곱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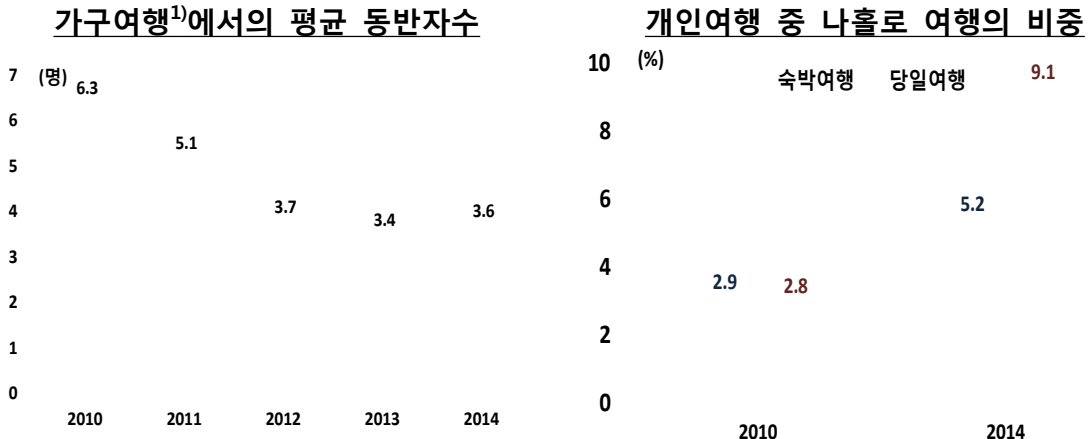
* 예) 2인 가구의 실질여행소비(2014년) = 2.2만원×2명×2인 가구수(2014년)
 2인 가구의 실질여행소비(2020년) = 2.2만원×2명×2인 가구수(2020년)

- 경제성장 효과 등을 배제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여행소비의 증가효과만 계산

■ t년의 실질증가율(%) =
$$\frac{\sum_{n=1}^7 n인 가구의 1인당 여행비 \times n \times t년의 n인 가구수}{\sum_{n=1}^7 n인 가구의 1인당 여행비 \times n \times t-1년의 n인 가구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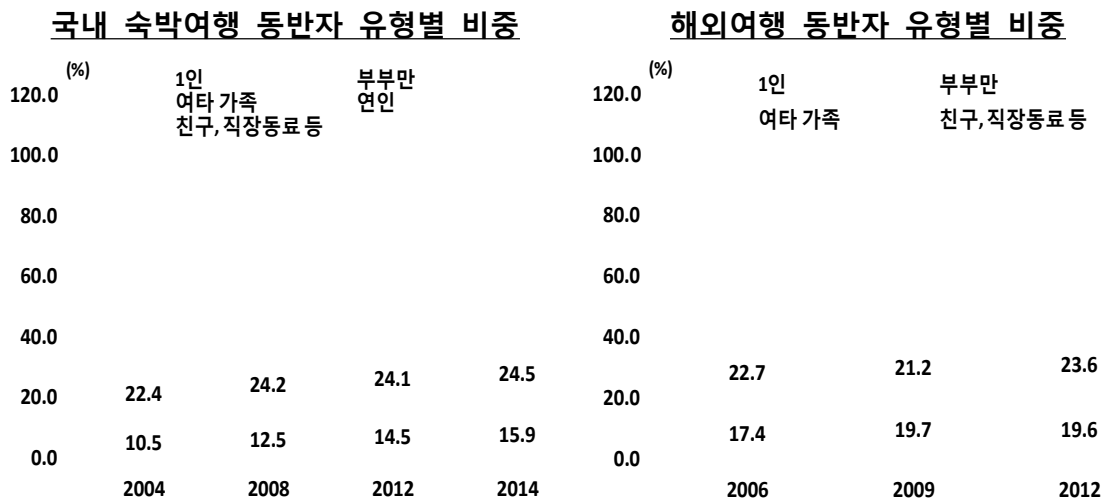
② (관광행태의 변화)

- ① 여행의 Downsizing : 독립성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소형가구의 증가는 여행동반자 규모를 축소시키고, 나홀로 및 부부 형태의 여행을 촉진



주: 1)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 2인(조사자 본인 외 1인) 이상이 동행한 숙박여행 기준
 자료: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일본에서도 소형가구의 증가와 함께 국내관광 및 해외관광에서 나홀로 및 부부 여행의 비중이 점차 확대



자료: じゃらん宿泊旅行調査 2015, Recruit Lifestyle社 자료: JTB REPORT 2013, (株) J T B 総合研究所

② **다양한 관광콘텐츠 수요** : 소형가구는 여행시 단순 휴양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경험하려는 경향이 높음

- **청장년 1인 가구**의 경우 힐링, 학습, 맛집체험 등 컨셉이 있는 여행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음식, 트래킹, 공연, 고유문화 등을 체험하고자 함
- **빈둥지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기존의 고령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문화 및 스포츠 활동 향유 욕구**가 강함

③ **여행지에서의 활발한 사교활동** : 소형가구는 **여행지에서 타인과의 만남이나 교류에 적극적인 자세**

- 특히 나홀로 여행에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1인 가구 여행자의 경우 다양한 낯선 사람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려는 성향

*제주 게스트 하우스의 바베큐 파티, 소셜 커머스 티몬의 '짹짹 여행 상품' 등

<참고 3>

'짹 짹 찾기 新메카' 제주 게스트하우스?

(한국일보, 2014.7.25.일자 기사)

제주도 게스트하우스가 20~30대 싱글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09년께 제주 올레길이 유명세를 타면서부터다. 올레길을 홀로 도보 여행하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젊은이가 급격히 늘었다. 게스트하우스가 청춘 남녀에게 인기인 것은 1박당 2~3만원에 불과한 짹 숙박료 때문만은 아니다. 매일 저녁 바베큐 파티를 열어 여행객끼리 사교의 장을 열어주는 이벤트 등이 주효했다.

슬로대접 대신 '짹 여행' 어때?

(머니위크, 2012.12.13일자 기사)

티켓몬스터(이하 티몬)에서 판매 중인 짹 해외특집 일본 여행 2탄. 상품이 공개되자마자 구매자만 30명을 넘어섰고, 상품을 찜해 놓은 이들은 90여명에 달한다. 오직 '싱글남녀'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지는 티몬의 '짹 여행'은 상품명에서부터 쉽게 짐작할 수 있듯 SBS <짹>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것이다. 지난 2월부터 17번의 국내 짹 여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누적판매량만 6569매에 달한다. 지난 11월부터는 해외여행으로 이를 확장해 시모노세키 지역 관광을 연계한 1탄 상품은 모두 182명이 구매해 '완판'을 기록했다.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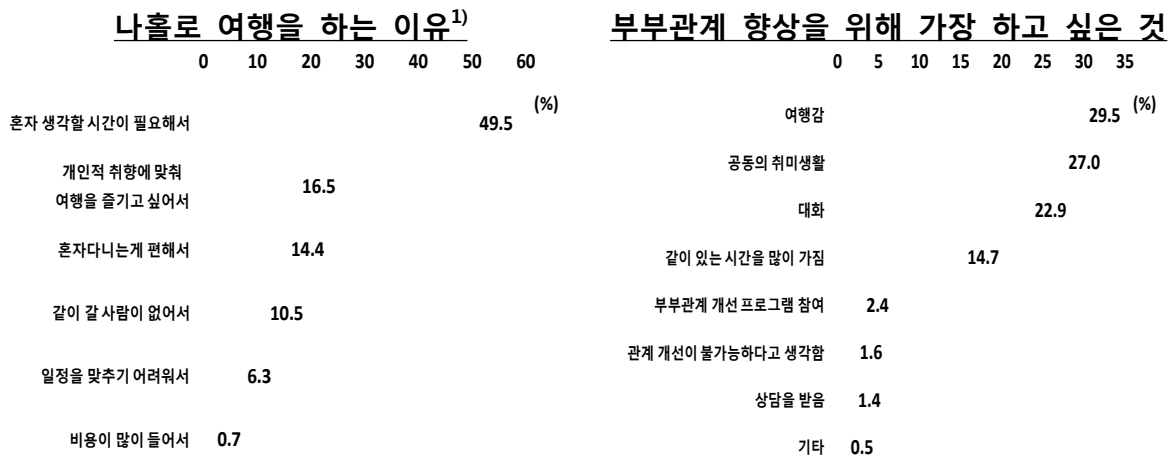
종합평가 및 시사점

① (종합평가) 재정적·시간적 여유가 많은 소형가구의 증가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 관광수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더불어 소형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여행의 Downsizing, 관광콘텐츠 수요, 여행지에서의 적극적인 사교활동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관광 행태를 유발할 가능성

⇒ 제주의 경우 소형가구의 관광기호를 충족시키는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가구소형화의 진전이 제주관광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제주의 올레길, 오름, 자연휴양림 등의 제주관광자원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나홀로 관광객과 로맨틱한 관광을 통해 관계회복을 모색하는 부부 등에게 적합



주: 1) 직장인 5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가족실태조사(2010), 통계청
 자료: 인쿠르트(2011)

② (시사점) 소형가구는 재정적 여력과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여행지 선택시 제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관광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의 관광수요를 제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

① 소규모 여행에 맞는 관광시설 및 서비스 제공

- 소규모 여행객의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격 소형 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
- 특히, 숙박시설 선택, 식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홀로 여행객들을 위한 1인용 객실 및 서비스를 확대
- 외국사례를 보면, 유럽의 경우 ‘포시텔’ 과 같이 공유를 통해 작고 저렴하지만 고급스러움까지 갖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리적이면서 여행의 특별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소규모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

<참고 4>

포시텔(Poshtels)

-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숙박업의 형태로 호스텔보다 고급스럽고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시설을 의미(Posh [화려한] + Hostel)
- 호스텔과 같이 통상 다른 여행객들과 숙소, 샤워시설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저렴하지만 호스텔보다 고급스러운 시설 및 인테리어를 갖춘 것이 특징



<ONE80° Hostel, 베를린, 출처: 업체 홈페이지>

② 관광콘텐츠 확충

-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이유가 다양한 체험과 새로운 문화·음식 향유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문화, 특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소형가구의 제주관광을 유도

*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31.7%)’, ‘색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어서(28.9%)’, ‘색다른 음식을 맛 볼 수 있어서(8.9%)’ 인 것으로 나타남 (행복관광을 위한 생애주기별 내국인 관광행태분석, 한국관광공사, 2013)

③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 관광안내소,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관광객간 또는 관광객과 현지인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지에서의 사교활동을 활성화
- 이러한 사교활동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추억을 제공하고 방문지에 대한 친숙함을 높여 재방문율을 높일 가능성

<참고 5>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
 - 가족중심의 관계를 떠나 사회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관계를 맺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
- 국내외 소셜다이닝
 - **Eat With** : 여행자와 현지 손맛 보유자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로 웹사이트에 여행지 및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현지인이 여행자를 자신의 집 또는 식당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
 - 식사비가 있으나 보통 저렴하고 집주인은 물론 다른 여행자와의 만남의 기회도 주어짐
 - **집밥** : 소셜다이닝을 위한 모임 개설 및 참석을 도와주는 인터넷 서비스로 홈페이지에 既등록된 모임에 신청하거나 새로 모임을 등록함으로써 식사모임에 참여
 - 음식 종류 뿐만 아니라 취미 활동, 관심 주제 별로 다양한 모임이 개설됨

④ 골프장 조인(join) 문화 활성화

- 제주의 주요 관광콘텐츠인 골프는 통상 4인이 팀을 이루어 진행하기 때문에 1~2인 여행객들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골프장 조인(join) 문화 활성화를 통해 나홀로 및 부부 여행객들의 참여를 유도**
- 국내에서는 아직 낯선 사람들과 팀을 구성하여 라운딩을 하는 문화가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팀 구성을 도와주는 체계 구축 및 수단 마련을 통해 골프장 조인을 촉진
 - 조인을 원하는 각 골프장 고객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골프장 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체계 구축
 - 제주도 통합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 SNS를 통해 도내에서 라운딩 상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골프 선진국에서와 같이 **캐디와 전동카트 없이 步行하면서 골프를 즐기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

⑤ 정주형 관광 여건 개선

- 소형가구의 **중장기 체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 관광지 할인혜택** 등 관광편의 서비스 여건을 개선할 필요
 - 관련 홈페이지 및 관광안내소를 통해 장기체류숙소, 대중교통, 의료, 시장정보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제주도 인재개발원의 이주민 대상 ‘제주자연경관바로알기’와 같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장기체류 관광객에게도 제공
 - 장기체류자에 대해 도민과 같이 관광지 할인혜택 제공 등

⑥ 소형관광객 관련 통계 개발

－ 관련 통계의 개발을 통해 **소형관광객의 제주관광실태 및 기호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필요

·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주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동반자수 및 동반유형 기준으로 편제**하여 소형관광객의 소비행태, 주요 방문지, 관광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관광정책에 반영

* 현재는 거주지, 성별, 연령, 방문목적, 여행형태, 방문횟수 기준으로 편제

<참 고 문 헌>

고가영(2014), “1인 가구 증가 소비지형도 바꾼다,” 『LG Insight』, LG 경제연구소

김덕기·조아라(2014), “생애주기별 국내관광 행태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정근(2011),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 가구,” 삼성경제연구소

김영철·김연수·김인경(2011),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2013), “1인 가구 증가가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사”

류정아·홍기원·우주희(200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문화수요 분석 및 대응 방안”, 한국관광문화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국민여행실태조사”

심원섭(2010),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윤대혁(2013),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관광수요에 미칠 영향 및 추진 과제,” 한국은행 제주본부

안신현(2012),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 삼성경제연구소

이은미(2013), “인구와 가계통계로 본 1인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재·김유민(2015), “키워드로 보는 2015 국내의 관광트렌드,” 투어고

포커스 제 160호,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최경은·윤주(2013), “1인 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경은·안희자(2014), “최근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하동현·변우희·조문식(2012), “관광학원론 개정판,” 한울출판사

한국관광공사(2013), “행복관광을 위한 생애주기별 내국인 관광행태 분석”

Datamonitor(2004), “Empty Nesters, Targeting High-spending Consumers,”

Klinenberg, Eric(2010), “Going Solo,” Penguin Books

Nicolau, L. Juan and Francisco J. Mas(2004), “Stochastic Modeling, A Three-Stage Tourist Choi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32, No.1 pp. 49-69

日本旅行業協會(2014), “数字が語る旅行業”

株式会社リクルートライフスタイル(2015), “じゃらん宿泊旅行調査 2014”

지 역 경 제 일 지

제주지역 경제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9.1	<p>▷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CJ제일제당과 탄산수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협력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상반기 제품 생산을 목표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소재 감귤 제1가공 공장에 생산설비 도입방안을 검토중
16	<p>▷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 재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6월 착공후 12월 중단되었던 민군복합항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이 2016.6월 준공을 목표로 9.15일 재개 ○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 투자액은 534억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7,928㎡ 규모의 크루즈터미널과 주민편의시설, 계류시설, 공원, 항만진입도로 등을 포함
23	<p>▷ 카카오, '다음카카오'에서 '카카오'로 사명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카카오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 결과 '카카오'로 사명을 변경하고 임지훈 대표이사를 단독대표로 선임
23	<p>▷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외국인면세점 사업시행자로 제주관광공사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공사는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해 내년 9월까지 출국장 면세점 건물을 지어 국가에 양도 후 5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을 갖게 됨
30	<p>▷ 통계청, 2014년말 기준 도내 사업체수 5만 3,984개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사업체수 증가율은 전국평균 3.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내 사업체 종사자수는 전년대비 4.0% 증가에 그쳐 전국평균 4.2%를 하회

지 역 경 제 지 표

일 러 두 기 NOTES

1. 통계 전반에 걸쳐서 사용된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0】 단위미만(0포함)

【-】 해당사항 없음

【∞】 미상

【r】 정정

【p】 잠정치

【Ⅰ,Ⅱ,Ⅲ,Ⅳ】 분기

2. 모든 통계는 합계와 세목이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음.

3. 전년 호에 수록된 계수와 다른 계수는 수정된 것으로 금년호가 정확함.

4. 금융기관의 포괄범위

(1) 중앙은행(한국은행)

(2) 예금은행

- ① 시중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② 지방은행 : 제주은행

③ 특수은행 :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
사업부분, 한국산업은행

(3) 비은행 금융기관

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

② 기타금융기관

: 생명보험회사

통 화 금 융

< 한국은행 >

- 1. 한국은행 화폐 발행 및 환수
- 2. 예금은행 지급준비 예치금 및
한국은행 대출금
- 3.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주요 대출금리
.....

< 금융기관 여·수신 >

- 4. 예금은행 예금
 - (1) 총예금
 - (2) 요구불예금
 - (3) 저축성예금
- 5. 예금은행 대출금
 - (1) 자금별
 - (2) 주체별 및 용도별
 - (3) 기업자금 대출금
 - (4) 산업별
- 6.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 7.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 8. 신용보증 잔액
 - (1) 보증 종류별
 - (2) 업종별

< 자금사정 >

- 9. 어음교환 및 부도
 - (1) 어음교환 및 부도율
 - (2) 부도업체수
- 10. 예금은행 예대율 및
요구불예금 회전을

산 업

- 11. 농산물 출하
- 12. 가축 도축두수
- 13. 수산물 출하
- 14. 제조업 지수
- 15. 건축허가면적 및 착공면적
- 16. 건설수주액 및 레미콘출하량
- 17.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고 용

- 18. 경제활동인구
- 19. 산업별 취업자
- 20.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물 가

- 21. 소비자물가지수
- 22. 부동산가격지수
 - (1)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세가격
지수
 - (2) 자가변동률

무 역

- 23. 수출입

기 타

- 24. 기업경기지수
- 25. 소비자동향지수
- 26. 신용카드 이용실적
- 27.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28. 자동차 등록대수